

[기획] >> 3면  
학내 게시판 문제

[심층] >> 5면  
구직 포기 청년

[사회] >> 7면  
집시법 개정

[인물] >> 12면  
이윤서 코트라 방산교역실 과장을 만나다



## 되돌아본 양캠퍼스 교통실태, 안전한 교내 이동을 위해선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와 글로벌캠퍼스 주변은 △과속△불법주정차△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교통안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보행자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시설 주변 도로 안전 현황△글램 주변 도로 안전 현황△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 4면에서 계속

글·사진 김상현 기자 06heon@hufs.ac.kr

###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도서관, 제3회 HUFStory 북토크 행사 개최해

지난 10일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도서관 1층 열린 공간에서 '제3회 HUFStory 북토크(이하 북토크)'가 개최됐다. 지난 3월 15일에 처음으로 진행된 북토크는 '우리학교 교수 및 동문연사를 비롯한 외대인에게 직접 듣는 책 이야기'라는 취지를 살린 문화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이번 강연은 최승필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하 최 교수)가 담당했다. 최 교수는 한국은행에서 10여 년간 기업 및 경기 분석과 국제투자포지션 공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했으며 현재까지도 법원 및 검찰의 학술 활동에 참여하면서 정부와 연구소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제3회 HUFStory 북토크 현장 모습 (출처: 전략홍보팀)

는 방법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며 법의 정의에 대해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 교수는 "법은 균형적 함의로 정의할 수 있다"며 "좋은 법은 시민의 법으로 답할 수 있다"고 전했다. 북토크 이후 사전질문 및 현장질문 시간엔 △법에 대한 여론△선례의 중요성△속법소년 등 법의 적용에 대해 소통하며 학술적인 질의를 자유롭게 나눴다. 명형택 우리학교 학술정보팀장은 "학생들이 북토크 행사를 통해 견문을 넓혔길 바라며 많은 관심 덕분에 이번 학기 새롭게 기획된 HUFStory 북토크의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끌어낼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박정운(서양·독일어 22) 씨는 "학교 수업 외에 교수님들을 만나 책에 관해 강연하시는 걸 듣는다는 건 새롭고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추후 진행될 행사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정연아 기자 06znchung@hufs.ac.kr

### 우리학교 EU연구소, 제4회 EU Youth Forum 개최해

지난달 19일 우리학교 EU연구소는 컨퍼런스 하우스 달게비에서 '유럽의 주요 이슈 및 미래 전망'을 주제로 '제4회 EU Youth Forum(이하 EU 유스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리학교 △장모네 EU센터△한국유럽학회 △장모네 학회지원사업단△EU연구소△EURAXESS Korea가 주관 및 후원했다. 본격적인 행사 진행에 앞서 신의찬 우리학교 EU연구소 책임연구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봉철 EU연구소 소장과 김시홍 장모네 EU센터 소장의 환영사△토마스 비에르츠보프스키(Tomasz Wierzbowski) EURAXESS Korea 대표의 기념사△이무성 한국유럽학회 장모네 학회지원사업단 단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제4회 EU Youth Forum 진행 모습 (출처: 전략홍보팀)

총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이번 EU 유스포럼의 첫 번째 세션은 '학부생 세션'이었다. 해당 세션에선 △유럽 국가의 역사와 전망△유럽과 외교관계△EU 에너지와 환경△EU의 최

근 이슈△EU 정책과 문화 5가지 주제를 주제로 유럽국가들의 △경제△사회△정치△제도△환경 등의 시사점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하고 폭넓은 연구가 진행됐다. 이어 두 번째 세션인 '대학원생 세션'에선 우리학교 대학원생들이 'EU와 국제사회의 동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발표 이후엔 이와 관련된 토론도 함께 이뤄졌다.

한편 EU 유스포럼은 유럽에 관심 있는 우리학교 국내외 대학생과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학문 후속 세대 발굴을 목적으로 개최된다. 행사 관계자는 "EU 유스포럼을 통해 학생들은 유럽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젊은 청년들의 새로운 관점과 시도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지명원 기자 04jimw@hufs.ac.kr



## 2023 HUFS APPAREL



boo\_hufs 인스타그램

# 우리학교 도서관,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2023 도서관 음악회 개최

지난달 16일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도서관 1층 라운지에서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2023 한국외대 도서관 음악회(이하 음악회)'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9월 우리학교와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가 융합형 창의 인재 육성과 케이컬처(K-culture)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이하 MOU)을 체결한 후 열린 첫 음악회다. 장일범(서양어·노어 87) 음악평론가(이하 장 평론가)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엔 우리학교 △교수△교직원△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는 △목관 오중주를 위한 〈사운드 오브 뮤직〉 중 발췌(Selections from the (Sound of Music) for Wind Quintet)△아게이, 다섯 개의 쉬운 춤곡(D. Agay, Five Easy Dances)△헨델/할브로센, 파사칼리아(G.F. Handel/J.Halvorsen, Passacaglia)△모차르트,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무지크(W.A.Mozart Eine Kleine Nachtmusik)를 연주했다. 음악회 내내 장 평론가는 관객들이 공연에 대해 잘 이해하고 음악을 수월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곡의 유래와 악기의 특성 등 관련 정보를 해설하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학생들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으며 음악을 감상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와의 기념촬영 모습 (출처: 전락홍보팀)

이날 공연을 관람한 우리학교 재학생 김예주(사범·한국어 22) 씨는 "평소 음악을 관람할 기회가 없었는데 우리학교 도서관에서 높은 수준의 클래식 공연을 즐길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도서관에서 다양한 공연이 열리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한 조유진(서양어·포르투갈어 19) 씨는 "공부를 하면서 공연을 즐길 수 있어 신선했다"며 "평소에 클래식 음악을 잘 듣지 않았는데 이번 음악회를 통해 클래식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음악회에 참여한 한 연주자는 "도서관에서의 공연이 처음엔 어색했지만 관객과 가까이에서 호흡할 수 있는 열린 무대가 매력적인 음악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는 1985년 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교향악단으로 △관현악△발레△오페라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공연을 선보인다. 매해 100회 이상의 연주로 우리나라 국민의 문화 향유 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연주자△작곡가△지휘자 등 음악 인재를 양성한다. 지난해 우리학교와의 MOU 체결 당시 최정숙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대표 이사는 "우리나라의 클래식 확산에 인문학도들의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제 문화 교류 진흥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인재 육성의 기반을 다져 클래식 저변 확대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지명원 기자 04jimw@hufs.ac.kr

# 우리학교 유라시아·몽골연구센터, 인피니티컨설팅과 산학협력 협약 체결

지난 26일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대학본부 연구산학협력단장실에서 유라시아·몽골연구센터가 주식회사 인피니티컨설팅(Infinity Consulting)과 한·몽 학술교류 촉진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엔 △김기선 유라시아·몽골연구센터장(이하 김 센터장)△김재욱 우리학교 연구산학협력단장△이영섭 주식회사 인피니티컨설팅 대표이사(이하 이 대표이사)△전도근 연구소장 등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서 양측은 △국제 학술대회와 세미나 공동 기획 및 정기학술대회 공동 개최△양방향 연구 및 학자 축적 사항△한·몽 양국 간 학술교류 연구성과 및 정보 교류에 대해 논의했다. 더불어 우리학교 유라시아·몽골연구센터에서 발간하는 영문지널 'Mongolian Diaspora'의 A&HCI\* 등재를 위한 재정 지원에 대해 협의했다.

김 센터장은 "우리학교 유라시아·몽골연구센터는 인피니티컨설팅과 함께 한·몽 간 △교육△관광△문화△인적 교류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동해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이 대표이사는 "우리학교 유라시아·몽골연구센터에서 발간 중인 영문지널 'Mongolian Diaspora'가 향후 A&HCI에 등재



▲한·몽 학술교류 촉진을 위한 협력 협약식 모습 (출처: 전락홍보팀)

될 수 있도록 발간 비용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결(아시아·몽골어 19) 씨는 "이번 협약식은 우리나라와 몽골의 교류

가 활성화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산학 협력을 꾸준히 확대해 한·몽 교류에 관한 실질적인 연구가 지속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학교 산하의 유라시아·몽골연구센터는 수도권 유일의 몽골 전문 연구센터로 우리나라와 몽골 양국의 학술교류 증진과 국내 몽골학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한·몽 수교 30주년이 넘으면서 한·몽 관계를 진전시키고 향후 양국의 질적 교류 확대와 전략적 협력 증진을 위한 데이터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유라시아·몽골연구센터는 학술적 분야 이외에도 현지 국가의 산업계 및 학계와의 전략적 공동 연구 및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산학협력 저변을 확대해 나가는 중이다.

\*A&HCI: Art and Humanities Citation Index의 약어로 1,700개 이상의 예술 및 인문학에 대한 초록 및 색인인 사회 및 자연 과학 저널을 포함하는 분야의 범위를 포함한 국제 저명 학술지

정연아 기자 06znchung@hufs.ac.kr

# 우리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에코세이프티, 창업 특강 개최

지난달 10일 우리학교 글로벌벤처스 공학관에서 '졸업생 선배가 알려주는 창업 특강'이 진행됐다. 창업보육센터가 주관한 이번 창업 특강은 입주기업과 학생 간 연계 및 창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해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강연에선 이성종(자연·환경 99) 주식회사 에코세이프티(ECOSAFETY) 대표(이하 이 대표)가 강연자로 나서 창업 △동기△과정△역경 등에 대한 경험담을 나눴다. 이후 질의응답을 통해 창업에 대한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창업보육센터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창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선배 창업가의 진심 어린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기업 간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



▲에코세이프티 이성종 대표의 창업특강 모습 (출처: 전락홍보팀)

고 창업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표는 "이번 교육이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창업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대를 보였다.

한편 우리학교 창업보육센터는 기술과 사업성은 갖추고 있으나 △사업장△시설△초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자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창업의 위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성장을 유도하며 현재 에코세이프티를 포함한 17개 업체가 입주해있다. 에코세이프티는 수질·토양정화장치와 대기시료채취장비 등의 사업 아이템을 바탕으로 환경을 연구하고 위해성을 평가하는 기업이다.

지명원 기자 04jimw@hufs.ac.kr

# 우리학교 인권센터, 교육부 대학 인권센터 확산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

지난 9일 우리학교 인권센터는 교육부가 주관한 2023년도 대학교 인권센터 확산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해당 사업은 고등교육법 개정 이후 학내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에 따라 인권 친화 문화 확산 및 대학 구성원의 인권 의식 강화에 모범을 보이는 대학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강원△수도권△제주도를 포함해 전국 권역별로 10개 대학의 인권센터를 선정해 대학별로 8천만 원의 국고 지원금을 지급했다. 사업 기간은 이번 해 5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우리학교는 참여형 프로그램 중심의 사업을 통해 학내 구성원의 인권 의식을 신장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할 예정이다.

박희호 우리학교 인권센터장은 "사업 선정 이전부터 운영해오던 학생 인권서포터즈 프로그램을 통해 탈북 학생과 외국인 학생도 인권보호 시스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 계획을 밝혔다. 또한 "우리학교의 강점인 다양한 외국어 인프라를 이용해 다국어 인권 책자를 발간하고 외국 유학생이 인권 시각지대에 내몰리지 않도록 학내 인권보호의 기

틀을 다잡을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학교는 지난 2001년 학생상담센터 내에 성문화상담실을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엔 인권센터 개설을 마쳤다. 우리학교 인권센터는 △괴롭힘△성폭력△성희롱△차별 등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함께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해 왔다. 또한 모든 학내 구성원에게 폭력예방과 인권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 평등하고 상호 존중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외에도 인권침해 실태 조사 및 예방조치와 인권 의식 증진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번 해 3월엔 인권서포터즈 프로그램을 도입해 우리학교 재학생의 △인권침해 예방 카드뉴스 기획 및 제작 홍보△인권친화적 캠퍼스 조성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인권센터 홍보 등 관련 제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모집된 인권서포터즈 1기는 이번 해 4월부터 12월까지 2개 학기에 걸쳐 활동할 예정이다.

정연아 기자 06znchung@hufs.ac.kr



## 2023년 정기시험 안내

FLEX(Foreign Language Examination)는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수년간의 개발을 거쳐 1999년 개발을 완료하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문적인 외국어능력시험으로 외국어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능력을 공정하고 균형있게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도구입니다. \*자격정보 안내 http://flex.hufs.ac.kr

### 1. 2023년 FLEX 정기시험 일정

구분	접수기간	시험일	성적 발표일	
			듣기·읽기	쓰기/말하기
1회	02.16~02.22	03.19	04.07(금)	04.21(금)
2회	04.27~05.03	05.28	06.16(금)	06.30(금)
3회	08.10~08.16	09.10	09.29(금)	10.13(금)
4회	10.05~10.11	11.05	11.24(금)	12.08(금)

\* 원서접수 마지막날의 마감시간은 18:00입니다.  
\* 고사장, 응시 과목에 따라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FLEX 듣기·읽기는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민간자격이며, 말하기, 쓰기는 등록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 2. 응시자격 : 제한없음

3. 평가언어 :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 1개 언어 선택 응시 (동시에 2개 언어 응시 불가)  
4. 원서접수 :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접수 가능 http://license.korcham.net

5. 응시료 : 듣기·읽기 45,000원, 말하기 75,000원, 쓰기 75,000원  
▶ 접수 수수료 : 1,200원  
▶ 수험료 환불규정 : 접수 기간 내 100% 환불, 접수 마감 이후-시험일 5일전 50%환불, 접수 수수료 환불 불가 시험일 4일전 이후 환불 불가

### 6. 결과발표

▶ 확인처 :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http://license.korcham.net (문의) 02-2102-3600  
▶ 성적유효기간 : 시험일로부터 2년

### 7. 참고사항

재학생 IBT FLEX(영어, 중국어) 응시 자격 : IBT 시험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FLEX 정기시험(해당 언어)에 응시한 자



## 한국외국어대학교(학부) 융합전공 상담·UX심리전공 신설 안내

### 1. 전공소개

인간의 내면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둔 기초심리·상담심리 관련 수업 및 인터넷과 가상공간 유저들의 심리작기제 및 안전에 관한 이슈를 파악하여, 디지털을 매개로 심리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할을 증진하는 교과과정으로 구성

### 2. Module 안내

Basic knowledge of Psychology and Data Science	심리학개론, 사회심리, 성격심리, 이상심리, 발달심리, 노년학 등의 기초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교육을 제공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 관련 및 UX 리서치에 심리학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data science와 프로그래밍의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
Mental health and Psychotherapy	개인이 삶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심리적 고통의 문제를 과학적 접근에 기초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UX Psychology	인터넷 유저의 경험을 심리학적으로 이해하고 문화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UX Research 선도
Digital Mental Health	정신건강문제에 대해 디지털 디바이스를 매개로 심리치료 및 예방에 관한 기초 교육

### 3. 교과과정 안내

· 전공필수 : 12학점 (심리학개론, UX심리학입문, Neuropsychology, 상담심리학)  
· 전공선택 : 30학점  
총 42학점 이수 필요 : Data Science(12학점)·상담심리(18학점)·UX심리(12학점)

### 4. 신청안내

5월 예정된 이중전공 신청 변경·취소 기간 및, 11월 예정된 이중전공 신청 기간

### 5. 졸업요건

5월, 11월 졸업시험 실시

### 6. 기타사항

가.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사 2급 자격 요건 충족 가능  
기타 자세한사항은 홈페이지(http://psychology.hufs.ac.kr/) 및 인스타그램(@hufs\_psychology) 참조

한국외국어대학교 상담·UX심리학과 이메일 psychology@hufs.ac.kr



# 난립하는 게시물, 실효적인 게시판 관리가 필요한 때

우리학교 건물 곳곳에 위치한 게시판은 다양한 규격과 종류의 게시물로 빼곡하다. 그러나 △무분별한 게시물 부착△상업성 홍보물의 난립△적절한 관리의 미흡으로 △공간 부족△게시물 가시성 저하△미관 손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자치적인 표현공간 확보란 학내 게시판 본래의 취지를 무

색하게 만드는 요소이므로 그 중요성이 간과될 수 없다. 학내 게시판의 순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우리학교 게시판의 문제점△문제 발생의 원인과 게시판 관리 현황△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 보자.

## ◆우리학교 게시판의 문제점

우리학교의 학내 게시판은 크게 특정 자치단체나 주제에 의해 관리되는 게시판과 그렇지 않은 공용게시판으로 나뉜다. 서울캠퍼스(이하 설캠프)의 경우 공용게시판은 △교수학습개발원△사회과학관△인문과학관 등 각 건물의 층계참 벽면과 분수대 앞에 위치해 있다. △단국대학△독립학부△학교 부처△학생회 등이 운영하는 전용게시판도 △국제학사△본관△사회과학관 등 다양한 공간에 분포해 있다.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프) 역시 각 건물 내부에 공용게시판이 설치돼 있고 야외의 경우 건물과 건물 사이 공간이나 건물 앞에 게시판이 존재한다.

현재 우리학교의 게시판은 범람하는 게시물로 인해 여러 문제들을 겪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일까지 외대학보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학교 게시판에서 게시물 난립으로 인한 문제를 인식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서울캠퍼스(이하 설캠프)와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프)에서 각각 87.5%와 62.5%로 조사됐다. 이러한 문제는 주로 각 건물에 존재하는 공용게시판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앞선 설문조사에서 설캠프 학생들은 △인문과학관(85.7%)△사회과학관(71.4%)△교수학습개발원(42.9%) 등에서 게시물 난립을 목격했다고 응답했다. 글캠프 학생들은 어문학관(80%)이나 교양관(40%) 등에서 동일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다.

게시물 난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중 게시물 가시성 저하(58.3%)와 미관 손상(50%)은 설캠프와 글캠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우리학교 재학생 유다인(중국·중의통 22) 씨는 “과도한 수의 게시물이 한정한 공간에 불규칙적으로 배열되다 보니 한 게시물 위에 다른 게시물이 겹쳐서 부착된 경우도 많다”며 “다소 난잡하게 느껴져 미관상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별도의 구분이나 구획 없이 부족한 공간에 게시물이 무분별하게 게재돼 주변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가독성 또한 떨어져 게시물의 내용이나 정보가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공간 부족(58.3%)에 따른 문제도 제기됐다. 게시판에 새로운 게시물을 부착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부족해 게시판이 이를 선점한 집단지나 개인에 의해 사유화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간 부족 문제는 글캠프보다는 설캠프에 상대적으로 집중돼 나타났다. 앞선 설문조사에서 해당 문제의 경험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설캠프에선 71.4%로 집계된 반면 글캠프에선 40%로 조사됐다.

## ◆문제 발생의 원인과 게시판 관리 현황

이러한 문제가 촉발되는 원인은 복합적이다. 우선 불필요한 게시물을 방치하는 게시 주제(75%)가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된다. 게시물을 게시한 주체가 시간이 지나 불필요해진 게시물을 자발적으로 철거하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학교 학내 게시판에 부착된 게시물 중에선 이미 모집 기간이 경과한 것도 많았다.

학교 측의 관리 소홀과 규정의 실효성 부재(75%)도 원인으로 꼽힌다. 우리학교에선 지난 3월부터 학내 게시물 게시 절차와 게시판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교내 게시물 관리 규정(이하 게시물 규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규정 제4조에 의하면 설캠프의 경우 학생을 포함한 학내 구성원이 게시하는 게시물은 학생지원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외부인의 게시물은 총괄지원팀에서 관리하고 있다. 한편 글캠프의 경우 각각 학생지원·장학팀과 총괄지원팀을 관리 주체로 두고 있다. 또한 제5조와 제6조에선 게시물을 게시하기에 앞서 상응하는 부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과 게시물의 게시기간을 최대 7일에서 14일로 한정한다는 점이 명시돼 있다. 게시물 매수의 상한을 5개에서 최대 10개로 제한하고 상업적인 게시물에 대한 게재를 금지하는 조목도 존재했다. 해당 규정은 교내에 계층되는 모든 형태의 현수막이나 게시물에 적용된다.

그러나 설캠프의 경우 이러한 규정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규정에서 적시하는 바와 달리 공용게시판에 대한 관리와 미화는 각 건물에 상주하는 경비원들이 수행하고 있었다. 설캠프 인문과학관 경비실 직원 A 씨는 “게시판이 과도하게 난잡해지면 상급자의 업무 지시에 따라 게시물을 주기적으로 철거하고 정리한다”며 “외부 게시물의 경우엔 임의로 떼기에 다소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설캠프 총괄지원팀 직원 B 씨는 “현재 6개월에 한 번 정도로 학내 미화 목적에 따른 게시판 관리가 이뤄지긴 하지만 명확한 관리 주체는 부재한 상태다”며 “특히 외부 게시물의 경우엔 총괄지원팀의 검인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부착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일일이 순회하며 단속하는 것은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규정 제7조에선 게시기간이 경과하거나 상업적인 게시물 등 규정 위반 게시물에 대해 철거를 명시하고 있지만 미흡한 관리로 인해 위법한 게시물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었다.

또한 설캠프에선 학내 게시판에 관한 중복되는 규정이 존재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우리학교 설캠프 총학생회(이하 총학) 중앙운영위원회에선 지난

이뤄지기 어려운 환경이다. 문제가 해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다. 이에 심나영(국제지역·브라질 22) 씨는 “학교에 의해 철거될 때까지 시간이 지난 게시물이 계속 게시판에 잔존하는 경험을 자주 했다”고 전했다.

또한 게시물들에 대한 규격 제한 부재(41.7%)와 외부인의 게시행위(33.3%)도 문제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우리학교 게시판에 부착된 게시물들의 규격도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21cm x 29.7cm부터 51cm x 72cm에 이르는 것까지 다양했으며 지난달 31일 기준 설캠프 인문과학관 2층에 위치한 공용게시판에 부착된 게시물 16개 중 12개가 외부 단체나 기관에 의해 게재된 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구직·구인 광고△상업광고△행사광고 등 학생 자치와는 무관한 게시물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글캠프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글캠프 인문경상관 2층에 위치한 공용게시판엔 전체 55개의 게시물 중 약 58.2%에 달하는 32개의 게시물이 외부 게시물이었다. 이에 대해 손정배(경영 19) 씨는 “현재 우리학교 게시판에 부착되는 게시물들 중 다수가 상업적이거나 특정 단체를 홍보하는 외부 게시물이란 것 같다”며 “이러한 외부 게시물로 인해 다른 학우들의 게시판 사용 기회가 제약되는 건 학내 게시판이 존재하는 목적과 상충한다”고 전했다.



▲ 다양한 규격과 종류의 게시물이 난립한 설캠프 인문과학관 내 게시판

2020년 ‘학내 게시판 운영 규칙’을 의결했으나 이는 설캠프 내에 설치된 모든 게시판을 그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우리학교의 앞선 게시물 규정과 중첩된다. 뿐만 아니라 총학의 규정은 제3조와 제4조에서 동일 게시물 매수 한도를 4매로 지정한다는 점과 철거 등 관리 주체를 학교가 아닌 총학 산하 중앙집행위원회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우리학교의 규정과 충돌하기도 한다. 또한 총학 규정에선 게시물을 ‘게시할 수 있다’고만 적시돼 있고 게시물 허가에 관한 별도의 절차나 요건은 규정돼 있지 않다. 누구든지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도 게시물을 게재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제3조 제2항에선 ‘학내 구성원의 게시 관리가 외부 단체의 게시 관리보다 우선한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 외부 단체의 게시행위를 제한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없었다. 이처럼 설캠프의 경우 게시물 관리에 있어 복수의 규정이 양립해 관리의 주체도 불명확한 실정이다.

이에 설캠프 총학은 해당 규정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발생으로 비대면 수업 환경이 지속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공포·시행되지 못하고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입장이다. 황유리 제57대 설캠프 부총학생회장(이하 황 부회장)은 “제55대 총학 재임 시기부터 최근까지 해당 규칙의 존재나 시행 가능성에 관해서 논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글캠프의 경우 우리학교의 게시물 규정에 의해 게시판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글캠프 총괄지원팀 직원 C 씨는 “모든 게시물은 게시물 규정에 입각해 사전에 관할 부서로부터 검인을 받아야 등재할 수 있다”며 “상업적 목적의 게시물 등 규정에 위배되는 게시물은 제보나 민원 등의 경로로 이를 인지하는 대로 지체 없이 유관 부서와 협의해 철거작업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글캠프는 교직원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은 탓에 위법한 게시물에 대한 대응이 즉각적으로

## ◆실효적인 게시판 관리를 위해선

무분별한 학내 게시판 이용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선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집행 수단이 필요하다. 충북대학교는 게시판을 관리하는 별도의 근로학생을 고용해 기간이 지난 게시물을 주기적으로 철거하고 있다. 실질적 집행 수단 확충을 위해선 각 게시판에 대한 관리 주체도 명확히 설정돼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김민석(통번역·태국어 21) 씨는 “특정 단위에 의해 관리되는 게시판과 그렇지 않은 공용게시판을 비교하면 그 상태의 차이가 확연하다”고 말했다.

우리학교 설캠프 총괄지원팀은 게시물 난립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향후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계획 중이다. 게시물을 게시함에 있어 사전에 인가를 받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주지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설캠프 총학은 총학 게시판에 대한 운영내규를 개편해 게시물 게재에 필요한 사전신청 양식을 마련

하고 △게시물 부착△게시물 부착기간△철거 등의 절차를 재정립할 계획이다. 황 부회장은 “총학 역시 학내 공용게시판에서 발생하는 게시물 난립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며 “해당 내규는 중앙집행위원회와 중앙운영위원회의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개비된 내규에는 △게시물 규격△게시물 부착 기간△게시물 심사 기준 등의 사항이 포함될 예정이다.

게시판을 증설하거나 용도에 따라 구획하는 것도 방법이다. 한양대학교의 경우 인문관 게시판을 △교수△수외부△광고△학과△학생회게시판의 4개 용도로 나누어 구성하고 있다. 우리학교 재학생 이종국(사회·정의 21) 씨는 “전반적으로 게시판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는다”면서 “게시판의 용도를 한정하거나 별도의 게시판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교내 게시판은 여전히 다수의 학내 구성원들에게 소통과 표현의 주요한 창구이자 매체 중 하나다. 게시판을 다시 본연의 공간으로 되돌리기 위한 해법을 고민해야 할 때다.

# 되돌아본 양 캠퍼스 교통실태, 안전한 교내 이동을 위해선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주변은 학생들의 통행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과속△불법주정차△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교통안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의 경우에도 과속과 많은 교내 차

량 운행량으로 보행자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설캠 주변 도로 안전 현황△ 글캠 주변 도로 안전 현황△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 ◆설캠 주변 도로 안전 현황

우리학교 국제학사 뒤 도로와 도서관 뒤 도로는 생활도로에 속한다. 생활도로는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폭이 12m 미만인 좁은 도로를 의미한다. 지난 2021년부터 실시된 '안전 속도 5030' 정책에 따라 차량은 도시부 생활도로에선 30km/h 이하의 속도로 주행해야 한다. 생활도로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도로보다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2022년도 국가 보행교통 실태조사'에선 △보도와 차도 혼용△비좁은 도로폭△횡단보도 부재의 요인으로 인해 대로보다 생활도로에서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이 가능한 보도의 폭을 의미하는 유효보도폭이 2m보다 좁을 경우 교통사고 평균 발생 건수는 1.82건에서 2.99건으로 64.2%나 증가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또한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켜 교통사고 위험을 4배 가량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설캠 △도서관 뒤△대학원 뒤△국제학사 뒤 생활도로에선 앞서 언급한 △좁은 보도폭△규정속도 위반△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의 위험요인이 모두 확인됐다.

먼저 도서관 뒤 도로의 폭은 5m에서 7m에 이르렀지만 주차된 차들로 인해 실질적인 도로폭은 약 2.6m에서 3.1m에 불과했다. 도로구조규칙에 따르면 △승용자동차△소형자동차△대형자동차의 설계기준자동차\* 폭은 각각 △1.7m△2m△2.5m에 달하므로 차량이 지나갈 시 유효보도폭은 2m를 넘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도로의 일부 구간의 경우 최소한으로 권고되는 보도폭인 1.5m에도 미치지 못했다. 도서관 뒤 도로를 지나가는 차량의 수와 속도를 측정할 결과 10분 동안 총 11대의 차량이 통과했다. 도로엔 주변 음식점과 커피숍을 이용하는 학생이 많아 과속을 하는 차량은 없었으나 차량과 보행자가 뒤엉켜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제학사 뒤 도로의 경우 도로폭이 약 4.4m에서 8m에 달했다. 주차된 차들이 있는 주택가 주변 일부 구간에선 유효보도폭이 2m를 넘지 못했지만 대다수의 구간이 2m 이상으로 측정됐다. 그러나 과속 차량과 주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배달원이 다수 포착됐다. 마찬가지로 10분 동안 해당 도로를 지나가는 차량의 수와 속도를 측정할 결과 총 25대의 차량이 지나갔다. 이 중 10대의 차량이 30km/h를 초과해 주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지나간 배달 오토바이 8대 중 5대가 주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다.

대학원 뒤 도로는 가장 넓은 도로폭을 갖고 있었다. 도로폭은 6m에서 8m로 측정됐으며 학교 후문 쪽 일부 구간을 제외하곤 주차된 차들도 존재하지 않았다. 연석과 울타리로 보도와 차도도 명확히 구분돼 있었다. 그러나 과속 문제와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 문제는 피하지 못했다. 10분 동안 총 66대의 차량이 지나갔고 이 중 29대의 차량이 30km/h를 초과해 주행했다. 또한 10분 동안 지나간 13대의 배달 오토바이 중 9대가 주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했다.

전반적인 교내 교통안전에도 우려가 제기된다. 잔디광장을 둘러싼 도로 주변엔 △국제학사△도서관△사회과학관이 위치해 있어 평소 학생들의 이동량이 많다. 음식 배달이나 택배 주문량도 많아 배달용 오토바이나 택배 차량의 출입이 잦은 편이다. 그러나 차도나 횡단보도가 전혀 표시돼 있지 않아 차량 진입 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로젠택배 소속 택배기사 박용철 씨는 "학생들이 많아 차량 진입 시 이동이 힘들다"며 "경적을 울려도 이어폰 착용이나 휴대전화 사용으로 차량을 인식하지 못해 위험한 순간이 많다"고 전했다. 이에 설캠 총괄지원팀 담당자는 "외부 차량에 대한 제재 사항이 명확히 존재하지 않고 기초적인 요급 징수 관련 업무만을 외부업체에 위탁해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 ◆글캠 주변 도로 현황

글캠의 지리적 위치상 캠퍼스 안팎 도로에 △광역버스△교내 셔틀버스△교직원·학생 통학버스 등 대형차량이 자주 운행되고 승용차로 통학하는 교직원과 학생이 많다. 글캠 주변 도로의 경우 차선 구분이 명확하고 도로와 보행자 도로가 연석으로 확실히 구분돼 있다. 그러나 신호등이 부재하거나 과속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캠퍼스 밖 도로의 경우 신호등은 설치돼 있으나 작동되지 않았다.

외대 정문 삼거리에서 중앙할인마트 사거리 사이 도로엔 △1005번△1117번△1150번△1303번△1500-2번 버스가 승하차하는 '외대, 모현 빌라 정류장'이 위치해 등하교 시 학생들의 이용이 빈번하다. 또한 도로 앞 상가엔 △음식점△자취방△주점 등 각종 편의·주거시설이 있어 학생들의 통행량이 비교적 많다. 그러나 현재 해당 횡단보도의 보행용 신호등과 차량용 신호등이 작동되지 않아 횡단보도 이용 시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용인 동부 경찰서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외대 정문 삼거리에서 중앙할인마트 사거리 사이 도로의 신호등은 처음부터 경보등으로만 작동됐다"며 "교통량이 타 도로에 비해 많지 않아 주민들과 학생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차들에 주의를 주는 경보등으로만 사용되고 있다"고 답했다. 도로 내에 주차 공간이 구획돼 운전자들의 시야 확보에도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우려도 나왔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외대사거리에서 60대 여성 보행자가 교통섬 횡단보도를 건너다 우회전하던 광역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전동킴보드 이용에 대한 위험성도 제기됐다. 교내 도로의 경우 지난해 25일부터 교통안전을 위해 전동킴보드 이용금지 조치가 실시됐지만 해당 도로는 학교 밖에 위치해 규제 대상이 아니다. 1150번 광역버스 운전기사 이대보 씨는 "버스의 경우 차체가 커 그만큼 사각지대가 넓다"며 "전동킴보드와 도로에서 나란히 주행할 때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아 불안하다"고 염려했다.

캠퍼스 내의 경우 교내 셔틀버스의 입석 문제가 교통안전에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광역버스는 지난해 말부터 입석이 금지됐지만 교내 셔틀버스는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교내 셔틀버스 용성고속관광 소속 운전기사 김윤선 씨는 "관광버스 구조상 입석이 위험

## ◆나아가야 할 방향

김태문 설캠 총괄지원팀장에 따르면 우리학교 교통안전 업무는 한 팀이 업무를 전담하기보다 행정지원처 단위로 여러 팀이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주차 관련 업무는 △시설관리팀△외부업체△총괄지원팀이 협력해 수행하고 교내 행사 시 교통안전 관련업무와 표시판 등 교내 교통 시설관리는 시설관리팀이 담당하고 있다. 교외의 경우 학교 업무 소관이 미치지 힘들어 구청이나 외부업체의 도움을 받고 있다. 특히 임시 면접이나 눈송고사처럼 밀집으로 인한 교통안전이 우려되는 사안인 경우 동대문구청과 동대문경찰서에 공고를 보내고 모범운전수를 고용해 교통을 정리하고 있다. 동대문구청 교통행정과 담당자는 "표시판 같은 도로 내 안전시설물의 관리는 민원 접수 시 동대문구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설치 및 관리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해 동대문구청 주차행정과 담당자는 "불법주정차 단속은 △고정형 CCTV 설치 구간△민원접수 지역△상설 정체 구간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특히 동대문구는 차량 등록 대비 주차 공간이 50%가 넘지 않아 불법주정차가 많은 구조다"고 답했다. 또한 "학교 주변인 △이문동△회기동△휘경동의 경우 주택가 밀집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해 교통 정체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계도 위주로 운영하는 등 탄력적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답했다.

글캠 내 교통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황형부 글캠 총괄지원팀 담당자는 외대 정문 삼거리에서 중앙할인마트 사거리 사이 도로의 경우 "학기 초 용인시 처인구청 및 경찰청과 협력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현수막을 부착했다"고 전했다. 글캠 교내의 경우 "지난 4월까지 △기속사삼거리△도서관△백년관 앞 정류장에 경비업체와 협력해 아침마다 교통관리를 실시했다"며 "교내 과속 차량의 경우 경비업체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과속하는 차들을 확인하고 추후 과속이 반복된다면 해당 차량을 계도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우리학교와 구청에서 교통안전에 대해 노력하고 있지만 운전자와 보행자의 인식제고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나리나(국제지역·프랑스 20) 씨는 "각 기관의 노력 이외에도 운전자와 보행자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을 대기 중이라도 운전자의 약 63%는 횡단보도를 과속으로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횡단을 시작한 경우에도 45.8%의 차량은 횡단보도를 과속 통과했다. 이는 보도와 차가 분리돼 있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선 서행과 일시 정지 등을 통해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는 규정이 지난해 신설됐음에도 아직은 운전자들의 관련 안전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보행자의 안전 의식 제고도 필요하다. 지난 2020년 보행 중 사망자 가운데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차도를 건너다가 숨진 사례는 전체 사망자의 34.4%를 차지했다. 또한 휴대전화를 보면서 걷는 이른바 '스몸비(Smombie)\*\*'도 보행자 안전의 큰 걸림돌로 지적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조사 결과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시 시야 폭과 전방 주시 정도가 각각 56%와 85% 가량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팀장은 "버스 하차 후 버스 앞쪽으로 통행 자체나 버스 정원 초과 시 탑승 자제 등 학생들이 교통안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내의 교통안전에 대해 재고해야 할 시점이다.

\*설계기준자동차: 도로 구조설계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  
\*\*스몸비(Smombie):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길을 걷는 사람들을 일컫는 스마트폰(Smart phone)과 좀비(Zombie)의 합성어



▲설캠 도서관 뒤 도로



▲글캠 정문 삼거리 신호등

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입석승차를 허용하고 있다"며 "정원이 초과했는데도 학생들이 억지로 승차하려 하는 등 안전상의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많다"고 토로했다.

과속 문제도 두드러졌다. '백년관 앞 정류장' 앞 도로엔 △광역버스△교내 셔틀버스△교직원 버스△승용차△하교버스가 운행된다. 특히 광역버스는 KD운송그룹 소속 버스들의 차고지로 이용되는 백년관 옆 주차장에서 '백년관 앞 정류장' 앞의 도로로 진입한다. 보행자의 경우 백년관에 가기 위해 기속사 셋길에서 나와 횡단보도를 이용하거나 교내 셔틀버스에서 하차해 해당 도로를 건너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차량 운행량과 보행자가 많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차들의 과속은 빈번히 발생했다. 외대학보가 차량 통행량과 운행속도를 측정하는 10분 동안 총 94대의 차량이 지나갔고 47대의 차량이 제한 속도인 30km/h를 초과해 주행했다. 일부 차량은 50km/h가 넘는 속도로 주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문병규 우리학교 통학버스 총괄 팀장(이하 문 팀장)은 "일부 교내 승용차들의 과속에 대해 버스 기사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교내 운전자들의 안전 의식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구직 포기 청년 50만 명 시대, 청년들이 일하고픈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지난 2월 통계청은 시험 준비 및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이른바 '쉬었음'에 해당하는 청년층이 49만 7,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심지어 지난 4월 통계청 조사에선 20대 쉬었음 인구가 △30대△40대△50대 쉬었음 인구를 추월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사회의 한 축이 되는 청년들이 구직 활동이나 취업

준비도 하지 않고 취업 의지 자체를 잃어버린 현상은 장기적으로 사회에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구직 포기 청년의 현황과 실태△청년들이 구직을 단념하는 이유△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 ◆구직 포기 청년의 현황과 실태

실업자와 취업 의지가 없는 상태인 '쉬었음'의 차이는 구직 활동의 유무에 따라 구분된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선 근로에 따른 수입은 없지만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했던 자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실업자로 정의한다. 한편 통계상 쉬었음이란 일할 능력은 있지만 구체적인 이유 없이 일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 또는 실업 상태도 아닌 인구를 뜻하는 비경제활동인구는 활동 상태별로 △가사·육아△수강·재학△심신장애△연로△기타 등으로 나뉜다. 쉬었음은 이 중 기타에 속한다.

지난 2월 통계청의 조사에서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 상태를 묻는 질문에 '쉬었음'에 해당하는 청년층의 수가 49만 7,000명으로 50만 명에 육박했다. 이는 지난 2003년 통계청의 조사 이후 최대치다. 심지어 지난 4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따르면 비경제활동인구 중 20대 쉬었음 인구는 38만 6,000명으로 50대 쉬었음 인구인 36만 5,000명을 추월했다.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8년 동안 20대 쉬었음 인구가 50대 쉬었음 인구를 추월한 적은 없었다. 통상 20대는 가장 취업하지 못하더라도 시험공부나 구직 활동을 활발히 하기에 다른 연령대보다 쉬었음 인구가 적게 집계됨에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경제활동참가율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해에 비해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은 0.4%p 증가했지만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은 1.2%p 떨어졌다. 전 연령층을 통틀어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진 계층은 청년층이 유일했다. 실제로 20대 경제활동참가율이 급감하면서 60대 초중반 세대조차도 20대보다 경제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다.

쉬었음으로 분류된 청년들이 급증한 것은 청년층에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한창이던 때만큼 구직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코로나19 유행 전엔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20만 명에서 30만 명 사이를 오갔다. 그러나 유행이 본격화된 지난 2020년 43만 8,000명을 기록했고 지난해엔 45만 3,000명까지 증가했다. 박윤수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고용 시장 여건이 안 좋아지면 구직 활동을 포기하는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며 "청년층 쉬었음 인구가 늘어난 것은 청년 취업 상황이 그만큼 악화됐다는 뜻이다"고 전했다.

## ◆청년들이 구직을 단념하는 이유

청년들이 구직을 단념하는 이유는 절대적인 일자리의 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4/4분기 통계청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전체 일자리 규모는 2045만 개로 이전 분기 대비 26만 개 증가했지만 20대 일자리 규모는 322만 개로 이전 분기 대비 5만 개 감소했다. 특히 배달업 중심의 플랫폼 일자리의 급감이 눈에 띄었다. 배달업은 원하는 시간에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어 청년층의 선호도가 높았다. 그러나 코로나19 유행이 지나고 배달업 수입이 줄어들면서 청년층의 이탈이 늘었다. 실제로 음식 배달원을 비롯한 △가사 도우미△건물 청소원△아파트 경비원 등의 단순노무 종사자는 1년 전보다 11만 1,000명 줄었다. 단순노무 종사자가 그 이전 해보다 줄어든 건 지난 2021년 1월 이후 2년 만이다.

청년 일자리의 불안정성은 구직을 포기하게 만드는 또 다른 원인이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비율은 지난 2020년부터 40%를 유지했다. 이는 늘어난 청년 일자리 중 상당수가 불안정한 일자리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연령층과 비교해도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30대 비정규직 비율은 21.9%였고 40대의 경우 이보다 조금 높은 26.5%로 이는 20대의 41.4%와 비교했을 때 한참 낮은 수치다. 실제로 지난 3월 통계청에 따르면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청년층 상용 근로자는 전년 대비 4만 5,000명 감소했다. 반면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청년 임시직과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청년 일용직은 각각 1만 3천 명과 1만 명씩 늘어났다. 한 요섭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청년층의 첫 일자리 구직 기간이 과거엔 1년 미만으로 집계됐는데 최근 그 기간이 증가했다"며 "청년층은 안정성이 높지 않은 일자리로 계속 전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노동시장 인력수급의 양적 불일치 문제도 존재한다. 청년층이 대기업과 공기업에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근로 조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구인난에 시달리고 이는 노동시장 인력수급 불일치로 직결되고 있다. 지난 2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청년 구직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세대 직장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청년층의 선호 직장은 △대기업(64.3%)△공공부문(44.0%)△중견기업(36.0%) 순이었다. 중소기업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15.7%에 그쳤다. 해당 조사는 중소기업에 대한 낮은 선호도가 중소기업 일자리에 대한 청년들의 부정적 인식이 반영된 수치라고 분석했다. 청년들은 중소기업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원인으로 △업무량에 비해 부실한 처우(63.3%)△워라밸 실현 어려움(45.3%)△불투명한 미래성장(43.7%)△낮은 고용안정성 우려(39.3%) 등을 꼽았다. 이렇듯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따른 대기업과 공공부문 선호 현상은 일자리 불일치를 고착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동열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일자리가 없다기보다는 청년층이 일하고 싶어 하는 일자리가 줄어든 게 가장 큰 이유다"며 "인력수급 불일치를 만든 고용환경이 문제다"고 설명했다.

노동시장에서의 질적 불일치 문제도 뚜렷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대학교 진학률이 70%를 웃돌 정도로 청년층의 고학력화가 두드러지고 있으나 경제환경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대학교 교육으로 인해 고학력 청년층의 직무능력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지난 2020년 KDI가 발표한 전공 선택의 관점에서 본 대졸 노동시장 미스매치와 개선방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교 졸업자의 70%가 대학교에 진학하지만 졸업 후 심각한 취업난을 겪으며 특히 취업자의 50%는 전공과 무관한 직장에 취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성인역량조사에 참여한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29개국 중 우리나라의 전공불일치율은 50.1%로 나타났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54.6%에 이은 전체 2위로 OECD 평균인 39.6%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처럼 산업수요와 무관한 청년층의 고학력화 기업들이 원하는 직무능력 간에 질적 불일치는 청년층의 고용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 ◆나아가야 할 방향

전문가들은 구직 포기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

다고 강조한다.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하는 방식은 경계해야 한다"며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는 일자리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2020년부터 정부는 청년 일자리 만들기 정책을 추진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기업이 IT 활용 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월 최대 18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총 6만 명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으로 5611억 원이 책정됐다. 정부는 해당 사업 목표 인원의 85.9%인 5만 2,000명의 채용을 완료했다고 밝혔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됐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이 따른다. 고승연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청년 정책 대부분은 청년층의 특징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맹목적인 양적 확대에 집중했다"며 "예산에 맞춰진 일자리가 아니라 청년의 역량 및 적성과 일치하는 직무 기반의 일자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국내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지난 2020년 기준 전체 기업의 99.9%는 중소기업이고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1,892만 7,000명 중 84%가 상용 근로자 300인 미만인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중소기업 일자리 문제 해소 방안을 묻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질문에 따르면 응답자 중 절반이 중소기업 근로조건 개선(46.7%)이 우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선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안전한 일터 조성△임금수준 향상△워라밸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안에서 "현장 맞춤형 정책을 통해 취업하고 싶은 오래 근무하고 싶은 기업을 발굴하고 연결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대기업의 임금을 100%로 놓았을 때 중소기업의 임금은 58.4%인데 반해 일본 내 중소기업의 임금은 20년간 80%로 유지되고 있다. 대졸 초임의 경우는 격차가 더 줄어들어 90%까지 상승했다. 이는 일본이 임금을 인상한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으로 해당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황광훈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지원해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노동시장에서 질적 불일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해외의 사례도 주목할 만하다.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는 청년층의 디지털 신기술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무료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청년취업사관학교를 통한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으며 실제 기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양질의 커리큘럼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독일은 아우스빌둥(Ausbildung)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우스빌둥은 기업의 수요에 맞춰 필요한 이론과 실무를 기업 현장과 학교 두 장소에서 가르치는 인재 양성 제도다. 임영태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산업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 훈련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청년층의 순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년들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모색하고 지원해야 할 때다.

황동현 기자 06donghyun@hufs.ac.kr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그들과 열매를 나눌 수 있는  
거목과 같은 사회공헌기업(CSR)을 지향합니다**



## 각 부문 신입/경력사원 모집

개량신약 전문기업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조직확대로 인해 함께 할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집합니다.

■ 유나이티드제약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모집부문	담당업무	경력구분	모집인원	근무지	응시자격
개량신약영업팀	국내영업	신입/경력	00명	전국	-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및 졸업예정자 - 경력의 경우, 제약 MR 업무 경력자 - 해병대 또는 ROTC 출신자 우대
해외영업팀	해외영업	신입/경력	0명	서울	-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및 졸업예정자 - 약학, 화학, 국제통상학, 어문학 관련 전공자 우대 - 각 지역별 담당 : 동남아, 중동, 중남미 - 경력의 경우, 해외영업 또는 국내 제약영업 3~5년 경력자

■ 지원서 접수

- 유나이티드제약 홈페이지(www.kup.co.kr) 온라인 지원
- 접수기간 : 2023년 6월 07일(수) ~ 2023년 6월 20일(화)

■ 전형방법

서류전형 ▶ 1차 면접(실무진 면접) ▶ 필기 시험 / 2차 면접(경영진 면접)

■ 기타사항

- 국가보훈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우대합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당사 인사팀으로 문의바랍니다 (TEL : 02-512-9981)



# 포용과 다양성의 나라, 브라질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7+1 파견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브라질 상파울루(São Paulo)에 위치한 FAAP대학교에서 공부했다. 전공어 학습도 유학의 주된 목적 중 하나였지만 무엇보다도 브라질의 대통령 선거가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다. 다른 나라의 사회적 움직임에 관심이 많은 편인데 마침 브라질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변화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브라질에서의 학교 생활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주중에 오후 한 시에 등교해 여섯 시에 하교했고 매주 목요일엔 문화의 날 수업에 참여해 현지인 친구들과 스바울관 방문, 브라질 음식 만들기, 영화 관람 등의 활동을 함께했다. 주말엔 주로 브라질 친구들과 레스토랑을 가거나 한국인 친구들과 한인타운에서 모임을 가졌다. 방학엔 여행을 가기도 했는데 그중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에 여행 갔던 것이 좋은 기억으로 남았다. 선거 분위기가 무르익을 시기엔 우리나라의 광화문 거리와 비슷한 파울리스타(Paulista) 거리에 자주 머물렀다. 숙소는 하숙으로 구하는 걸 추천하는데 하숙집에 머물면 현지인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언어 실력이 크게 향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임대료가 저렴하고 위험할 때 안전을 보장해줄 사람이 상주하고 있다는 게 하숙의 장점이다.

학기가 끝난 이후로는 상파울루 곳곳을 여행하면서 다



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 장미철이라 여행하는 게 힘들었지만 이비라푸에라(Ibirapuera) 공원이나 베트맨 거리처럼 유명한 관광지는 전부 둘러봤다. 월드컵 시즌엔 브라질 친구들과 맥주를 마시며 경기를 보기도 했다. 특히 상파울루엔 봉헤티로(Bom Retiro)라는 큰 규모의 한인타운이 있는데 그곳에서 만난 한국계 브라질인 친구들과 함께 포르투갈어로 나는 대화도 인상 깊었다. 브라질엔 맛있는 음식도 많았는데 특히 치즈와 맥주가 기억에 남는다. 상파울루의 피자는 살면서 먹었던 음식 중 가장 맛있었고 브라질의 흑맥주는 지금까지 마신 술 중 가장 달콤하고 부드러운데. 또한 아시아계 이민자가 많

아 한식을 포함한 여러 아시아 음식을 언제든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상파울루의 큰 장점이었다. 브라질에 가게 되면 여행을 자주 다니며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걸 추천한다. 그러나 여행 시 소매치기와 같은 경범죄에 대비해야 한다. 길거리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고 아무리안 전한 지역이라도 저녁에 걷는 일은 기겁적삼아야 한다. 여행 가는 길에 우범 지역이 있지 않음도 항상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

교환학생 생활은 전반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웠다. 우선 짧은 기간 동안 전공어 실력을 많이 끌어올릴 수 있었다. 하루종일 포르투갈어로 수업을 듣고 현지인과 자주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언어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됐다. 과

거에 포르투갈어는 내게 지루함을 주는 존재였지만 브라질에 다녀온 후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재미를 느낄 수 있었다. 또한 파견기간 동안 대통령 선거와 월드컵이 진행되던 세상을 만들기 위한 브라질 사람들의 열망, 정적 입장에 따른 참예한 갈등, 축구를 향한 그들의 순수한 열정을 곳곳에서 체험할 수 있어 좋았다. △경제 구조 △기후 △문화 △영양의 크기 △인종 구성 등 많은 것이 우리나라와 정반대인 나라에서 머물고 배워 모든 사람은 대동소이할 뿐 근본적으로 같다는 사실을 느꼈고 덕분에 편견과 고정 관념을 견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최효재(서양어 · 포르투갈어 19)

## 스페인

### <라사리오 데 토르메스의 삶, 그의 행운과 불운>

- 불운에 순응하며 변화하는 삶 -



책 라사리오 데 토르메스의 삶, 그의 행운과 불운은 1554년 출간된 작자미상의 스페인 최초 사실주의 소설이다. 오랜 세월 동안 이 작품의 작가는 디에고 우르타도 데 멘도자(Diego Hurtado de Mendoza)라는 귀족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일각에선 16세기 궁정관리였던 알폰소 데 발데스(Alfonso de Valdés)가 해당 작품의 작가라는 주장도 힘을 얻었다. 작가에 관한 여러 추측이 난무하지만

아마 이 책의 작가는 영영 밝혀지지 않을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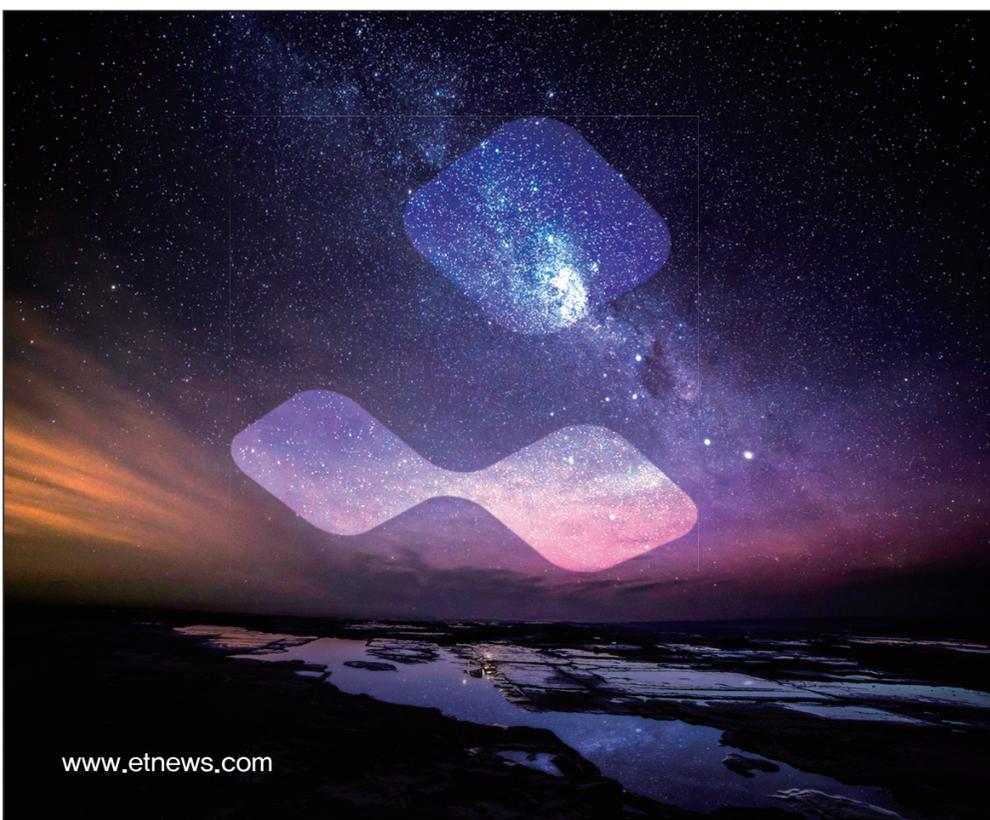
이 작품을 시작으로 스페인 문학계에선 '피카레스크 소설(Novela Picaresca)'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출현해 17세기 초반까지 크게 유행했다. 피카레스크 소설은 하층계급 출신의 피카로(picaro, 악독한 주인공)가 가정과 사회를 떠나 방황하며 겪는 일들을 사실적이고 진솔하게 서술한다. 소설 속 일련의 사건들은 독립적이지만 전체적으로는 긴밀한 관계를 띠는 특징을 지닌다.

이 소설은 가난과 고난을 극복하며 살아가야 했던 피카로 라사리오가 자신의 과거를 각하라고 일컬어지는 높은 신분의 사람에게 편지 형식으로 고백하는 1인칭 자전적 형식을 갖추고 있다. 라사리오는 암울한 삶으로 인해 방황하지만 결코 어렵게 살아가지 않는다. 자신에게 닥치는 불행에 맞서 싸우기보다 본인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순응하며 성장한다.

소설의 각 장에선 라사리오가 주인들을 섬기며 벌어지는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의 눈에 비친 주인들 가운데 당시 스페인 사회의 지도층이었던 성직자들이 유독 부정적으로 그려진다. 스구도쇠이자 이기주의자인 마세다의 신부, 스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산살바도르 수석사제, 스자극적인 면죄부 포교사, 스세속적인 일에 열중하는 메르세데의 수도사, 스장사에 몰두하는 성당 전속 사제가 바로 그들이다. 이는 라사리오를 통해 당대 사회 지도층의 부패와 부조리를 고발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내포된 것이다. 다만 작가는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과 부패성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아이러니하고 유머러스하게 풍자한다. 이러한 표현기법을 통해 라사리오의 악독함은 약화되고 성직자들의 세속적이고 비도덕적인 행동은 부각되는 효과를 낸 것이다. 또한 이들을 섬기며 한 단계 성숙해지는 라사리오의 긍정적인 변화를 돋보이게 한다.

이 소설은 출간됐을 당시엔 종교재판 금서목록으로 지정돼 인기를 끌지 못했다. 오직 부패한 성직자에 대한 비판의식을 가진 께어있는 일부 사람들만이 관심을 가졌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 소설은 오늘날의 우리에게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든다. 특히 방황하며 살아가던 라사리오의 모습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혼돈을 겪는 현대인의 모습과 닮아있다고 느껴진다. 스페인 문학사에 한 획을 그은 이 소설을 읽으며 피카레스크 소설의 정수를 느껴보길 바란다.

지명원 기자 04jimw@hufs.ac.kr



# 미래산업의 아이콘 전자신문

IT코리아를 위해 앞장선 전자신문이 전자산업의 흐름을 정확히 진단하고 업계 여론을 선도하며 전자·정보통신 분야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신생기업에는 벤처정신을, 대기업에는 혁신전략을, 그리고 개인에게는 지혜로운 정보화 마인드를...

디지털 혁명의 선두에서 더 넓은 IT세상을 펼쳐가는 이 시대의 리더입니다.

# 집시법 개정안, 상호이해의 해법을 찾기 위해선

지난달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 간부가 경찰의 표적 수사에 반발하며 분신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건설노조가 추모 시위를 벌이자 일각에선 해당 시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여당은 집시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는 한

편 노동계와 야당은 개정에 위한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집시법 개정에 대해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집시법 개정안이 떠오른 배경 △집시법 개정안을 둘러싼 쟁점 △양 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에 대해 알아보자.

## ◆집시법 개정안이 떠오른 배경

집시법은 정치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 아래 적법한 집회와 시위를 보장하고 그 권리 보장과 공공의 질서가 조화를 이루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집회와 시위는 권리 집행 과정에서 다른 기본권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 집행 과정에서의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심지어 법 해석의 여지가 모호한 영역도 존재해 권리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집시법 내의 모호성을 가중시키는 조항은 집회 및 시위의 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제10조다. 집시법 제1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명확한 시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해당 조항은 처음 집시법 제정 당시 명시된 상태를 유지 중이다.

한법제판소(이하 한재)는 지난 2009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 2009년 해가 뜨기 전이나 진 후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헌법 제39조 제2항 기본권 제한에 관한 일반 헌법 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서 제한의 최소성 기준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14년 이미 보편화된 야간의 일상생활 범주에 속하는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를 처벌하면 위헌에 해당하기에 심야 12시 이전의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과잉이라며 헌정위헌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한재의 헌법불합치 판정 이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집시법 제10조는 효력을 상실했다. 헌법제판소법 제47조 2항에 따라 한재의 결정 이후 법률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 일정 기간 내에 법률을 개정하는 개선입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법률은 입법 공백 상태가 된다. 현재 자정까지의 집회 및 시위 금지에 부에 대한 근거 규정은 입법 공백으로 인해 유명무실한 조항으로 남아 있다.

최근 집시법을 둘러싼 논란도 제10조에 의거해 발생했다. 지난달 1일 노동절에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양회동 씨가 경찰의 노동조합 표적 수사에 반발해 분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자 건설노조는 이를 추모하며 현 정부와 경찰을 비판하는 총파업 결의대회를 전개했다. 노동조합원 1만 4000여 명이 서울광장과 창계광장 일대에서 노숙한 뒤 이른날 서울지방고용청 앞 8차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진행했다. 논란은 일부 노동조합원들이 인도에서 음주 및 노숙을 하며 집회를 벌여 불거졌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하며 11개 소음 신고를 접수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당 집회를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행태이며”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정당화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야당은 다른 기본권과 충돌하는 집시법의 일정 법률을 개정해 불법성 심야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자 나섰다. 개정안의 내용은 △출퇴근 시간 및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의 집회 및 시위 금지 △불법 행위 전력 단체에 대한 집회 및 시위 불허 △경찰 공권력 강화 방안 등이다.

노동계와 야당은 집시법 개정 내용에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해당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지난 28일 민노총은 논평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정권을 비판하고 대항하는 모든 행위를 가로막는 것이다”며 “이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대응했다. 건설노조의 노숙 시위에 대한 불법 여부도 모호한 상황이다. 건설노조는 정해진 집회 시간이 종료되자 동일 이태원 참사 추모제에 참여하며 집회를 이어갔다. 집시법 제15조에 의하면 △관혼상제 △추모제 △축제 관련 집회는 제한 및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노숙 자체에 대해서도 처벌 가능한 법적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의 △거친 말이나 행동 △대소변 △침 등은 범칙금 부과 대상이 아닌도를 차지하는 노숙 행위는 관련 처벌 규정이 부재하다.

## ◆집시법 개정안을 둘러싼 쟁점

여당이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고 집회와 시위가 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이 집계한 지난해 연간 집회 신고 건수는 접수기준 1만 1911회로 지난 2018년 대비 21배 증가했다. 이처럼 집회 건

수가 증가하면서 현행 집시법이 집회의 자유는 보장할 수 있지만 시민의 불편은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들이 집회와 시위로 인해 가장 직접적인 불편을 겪는 분야는 소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9일 치안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령상 집회 소음 규제 조항들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 방안’ 논문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75%가 “집회 소음이 일상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급격하게 집회가 늘어난 용산에 거주하는 40대 학부모 장모씨는 “일정 수준을 넘어선 집회 소음이나 교통 혼잡이 주를 이루는 집회가 난무하고 있어 일부 제한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집시법 제24조에 따르면 1시간 동안 3번 이상 최고 소음도 기준을 초과하거나 10분간 연속 측정된 평균 소음도 기준을 넘을 경우 경찰은 소음 유지 명령 혹은 확성기 등의 사용금지 명령을 내리고 이를 빼앗아 보관할 수 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7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등의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행에서의 법 적용 문제점을 지적한다. 집시법 제24조는 명령 위반의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진 사례는 없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맞벌집회의 경우 양측의 책임 소재를 따지기가 어렵고 집회 및 시위 참여 인원이 이동할 때 측정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집시법상 집회 불가 장소의 범위가 한정적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집시법 제25조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25조에 따른 학교 주변 지역의 집회는 금지된다. 그러나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에 집시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의 집회 현상이 어린이집 앞까지 확대되면서 소음 피해가 이어졌지만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었다.

여당은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집회와 시위 개최 계획을 신고할 경우 이를 허가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그러나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를 집회 신고 단계에 제한하는 것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신고 단계에서의 제한이 기존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다. 현재 우리나라 헌법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적시하면서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헌상회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이후부터 새벽까지는 제한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한을 하더라도 원칙적 허용과 예외적 제한으로 가야 한다”며 “지금 논의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허가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유는 현행 집시법에 공공질서를 해하는 집회를 제한하는 방안이 이미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집시법은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 위협이 명백한 집회·시위의 금지(제25조) 모든 옥외집회의 4시간 전 신고(제6조) △질서유지선 설정(제13조) △심각한 소음 발생 시 확산기 사용 제한(제14조) 등으로 불법 집회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박헌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폭행·협박·방화 등은 그대로 두면 정말 큰 생명과 안전의 위협이 있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다”며 “집회와 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법원 또한 불법 집회 전력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해선 안 된다는 일관된 판결을 내려왔다. 지난 2009년 경찰이 불법 시위 전력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자 국가인권위원회도 주의 조치를 내리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렇듯 법원의 판례가 존재하고 현행 집시법에 불법 집회를 제한하는 방안이 이미 규정돼 있음에도 개정을 추진하는 건 경찰과 정부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도 집시법 개정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성명을 내고 “집시법 제10조가 13년 동안 개정되지 않은 것은 개정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며 “야간 집회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이 민주주의를 위한 실천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야당도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집시법 개정 추진은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다”며 “집회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핵심 기본권이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사회 평가도 마찬가지다. 지난 2016년에 발행된 평화로운 집회 결사의 자유 권리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보고서는 집회를 방해물로 간주해 오로지 법과 질서에 따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으며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집회에서의 혼란은 권리가

침해되지 않기 위해 용인돼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집회의 자유는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합법적인 권리인데 합법성을 따지는 것대로 국내법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적법 집회 보장을 목표로 두는 집시법 개정을 비판했다.

## ◆양 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

집시법 개정에서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는 분명 존재하나 노동조합의 강도 높은 파업 등 자진한 권리행사를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매년 반복되는 택배노조 파업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2021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민주노총 택배노조 C대한통운 본부가 총 64일 동안 총파업을 진행해 하루 평균 40만 건의 택배 운송 차질이 발생했다. 또한 지난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조합 화물연대 본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이유로 두 번에 걸친 총파업을 벌였다.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두 차례의 파업으로 한국 경제는 총 10조 40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직장인 박모씨는 “집회의 자유 및 노동권을 볼모로 타인의 일상에 고통을 유발하는 불법을 상습적으로 행하는 노동조합은 폭력 조직과 다를 바 없다”며 “명분 없는 노동조합은 더 이상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은 지난 2022년 윤재욱 원내대표(이하 윤 대표)가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을 야당과의 협상안으로 고려 중이다. 윤 대표의 집시법 개정안은 현재 여당이 논의 중인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이나 3년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와 함께 지난 2022년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외집회 금지 시간을 오전 0시부터 7시까지로 규정해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과의 병합 가능성도 논의됐다.

그러나 지난 5년간 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 등록된 집회 금지 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문 2건 중 집회 금지가 정당하다는 판결은 4건에 불과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논의 중인 불법 전력 단체에 대한 제한 내용도 전무하다. 다만 교통 소통을 근거로 금지 처분을 받은 판결은 총 9건이었는데 그중도 조건부로나 마 집회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판결이 내려졌다. 박성배 변호사는 “지금 규정된 집시법을 토대로 현행에서의 법률 적용에 집중해 시위 참가자 및 일반 시민에 대한 실적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집시법 관련 논의는 추가 개정보다 법률 해석 및 적용 차원의 문제로 이해해야 함을 당부했다.

집회 및 시위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이 최근 판결 추세인 만큼 여당이 추진하려는 집시법 개정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범법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대다수의 시민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소음과 점거 등 일부 시위에 대한 관행적인 악습들은 단계적인 합의를 통해 지양하거나 절충해야 한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만큼 국민의 법감정 또한 주요한 고려사항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서울신문은 “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집회와 표현 자유의 시민 기본권은 어떤 경우에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하지만 일부의 집회 자유가 다수 사회 구성원들의 기본권을 무차별 침해하면서까지 무한 보장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헌법에 보장된 시민 자유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집회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로 다른 가치가 충돌할 경우 양측 중 하나의 가치를 우선하기보다 각각의 가치를 양립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집시법을 둘러싼 오랜 논쟁이 상호이해의 과정을 거쳐 윈윈한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생성형 인공지능의 양면성, 올바른 활용방안을 찾아야 할 때

지난 23일 네이버웹툰에서 연재를 시작한 '신과함께 돌아온 기사왕님'이 인공지능(AI) 기술로 제작돼 논란이 불거졌다. 일각에선 AI를 통한 작업은 창작물을 도둑질하는 행위라며 생성형 AI에 대한 경계심을 키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지뿐만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음원을 만들어내는 등 생성형 AI의 기술은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창작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생성형 AI의 정의와 활용 목적, 생성형 AI를 둘러싼 논쟁,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 ◆생성형 AI의 정의와 활용 목적

생성형 AI란 △오디오△이미지△텍스트 등 기존의 콘텐츠를 활용해 이와 유사한 창작물을 새로 만들어내는 AI 기술로 '제너레이티브(generative) AI'로도 불린다. 기존의 AI가 데이터와 패턴을 학습해 대상을 이해하는 것에 그쳤다면 생성형 AI는 기존 데이터와의 비교 학습을 통해 새로운 창작물을 탄생시킨다. 텍스트 분야에선 주어진 소재로 시를 짓거나 소설을 창작할 수 있으며 이미지 분야에선 특정 작가의 화풍을 모사해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한다. 특히 최근엔 생성형 AI를 통해 글을 이미지나 비디오로 변환시키는 기술도 주목받고 있다. 구글(Google)은 텍스트를 동영상화해 영상 콘텐츠를 생성하는 AI 비디오 생성기 '이메진 비디오(Imagine Video)'를 새롭게 선보였다. 음성 분야에서도 여러 장르의 음악을 작곡하거나 특정 노래를 원하는 가수의 음색으로 재생성하는 등 다양한 활용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생성형 AI 활용의 주목적은 효율성이다.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사람에 비해 훨씬 단기간에 작업물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리랜서 그림 작가와 고객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인 '크몽(Kmong)'에 따르면 그림 작가들의 외주 작업은 10만 원에서 40만 원대에 가격이 형성되며 작업 기간은 10일에서 길게는 한 달 이상 소요된다. 그러나 동일 플랫폼에서 AI로 만든 작업물은 가격대가 1만 원에서 5만 원 선이며 작업 기간도 5일 이내로 매우 짧은 편이다. 업계측은 저작권 문제가 없다면 AI를 활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비판하기보다 AI 사용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적절한 활용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플랫폼에선 AI 디자인 카테고리를 따로 만들기도 했다. 다만 AI 활용에 대한 비판이 멈추지 않아 업계 측은 AI가 생성하는 작품과 사람이 만드는 것에 큰 차이가 없기에 오히려 AI를 활용함으로써 작가들의 편의와 효율성을 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업계 관계자는 "AI를 이용하면 창작 환경이 개선되고 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는데 무조건 배척하는 건 문제다"며 "AI를 창작자가 아닌 도구로 봐야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완성형 작품을 만들어내는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림을 그리거나 작곡을 하는 과정에서 기본 틀을 구상하는 데 많은 창작자가 생성형 AI를 활용하고 있다.

## ◆생성형 AI를 둘러싼 논쟁

생성형 AI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작권에 있다. 일반적으로 AI가 생성한 작업물에 대해선 사용자나 AI 운영업체에게 저작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권은 인간의 창작물에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성형 AI가 발전하면서 AI가 만들어내는 작업물의 저작권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생성형 AI는 기존의 창작물을 학습해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내기에 그 과정에서 기존의 창작물 활용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창작물에 대해 AI 운영업체 측에 저작권이 부여된다면 생성형 AI가 학습한 원 창작물에 대한 보호는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 아직 우리나라엔 생성형 AI와 관련된 저작권법이 부재해 생성형 AI의 학습에 자신의 창작물이 활용되더라도 창작자는 그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 일부 국가들에선 생성형 AI에 대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Text and Data Mining(이하 TDM) 면책규정'을 입법화했다. TDM 면책규정은 챗GPT가 발달함에 따라 함께 논의돼 온 규정으로 정보분석을 위해 창작물을 사용

할 시 원 저작자의 동의 없이 AI 학습용 데이터로 창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우리나라에선 이와 유사하게 '공정한 이용'을 저작권 유보 조건으로 삼고 있다. 저작권법 제 35조 5에 따르면 창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 창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창작물이 상업화된다면 원 저작자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어 명확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다른 문제는 생성형 AI로 만들어지는 창작물 자체에 대한 사람들의 반감이 크다는 것이다. 지난 23일에 연재를 시작한 네이버웹툰 '신과함께 돌아온 기사왕님'이 AI로 제작된 웹툰이란 논란이 불거지며 독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자 제작사인 '블루라인 스튜디오'는 해명을 나섰다. 블루라인 스튜디오 측은 "작업 과정에서 AI를 활용한 것은 맞으나 마무리 보정 단계의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서였다"며 "창작의 영역에 있어선 스튜디오에서 직접 작업한

## ◆나아가야 할 방향

지난달 11일 미국 정부에선 생성형 AI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해결 방안을 도입했다. 앨런 데이비드슨(Alan Davidson) 국가통신정보국 국장은 "AI의 책임감 있는 사용을 위해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며 "식품과 자동차가 적절한 검증 과정을 거친 후 시장에 출시되는 것처럼 AI도 절차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같은 날 중국도 '생성형 AI 서비스 관리법' 초안을 공개했다. 해당 규제안에 따르면 새로운 생성형 AI 서비스는 출시 전에 당국의 안전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 항목으로는 △개인정보보호△제공 정보의 객관성과 진실성 보장△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조건이 포함됐다. 또한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공급업자들은 벌금을 부과받거나 형사 조사에 처할 수 있다. 기업체 차원에서 규제에 나선 구글은 생성 이미지 기능을 출시함과 동시에 AI 생성 이미지의 모든 원본 파일에 '구글이 생성한 AI 이미지'라는 표시를 첨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도 AI 저작권과 관련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10일 우리나라 그림작가들은 'AI 이미지 생성기의 무분별한 사용과 악용을 막기 위한 법적 규제에 관한 청원'을 통해 AI 이미지 생성기에 대한 규제를 요구했고 한 달 만에 약 5만 명 기량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은 'AI 학습 데이터 세트의 투명성을 강제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AI로 만든 이미지에 대해 AI 모델이나 원작자 등 출처를 표시하고 AI로 만든 이미지임을 검증할 수 있도록 워터마크(watermark) 첨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문화가협회 등 창작자 단체에선 AI를 주제로 포럼을 열며 AI 생산과 관련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도 AI 창작물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다. 국회에선 이미지나 음악 등의 콘텐츠가 AI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실제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를 활용해 제작물을 만든 경우 콘텐츠 제작자가 이를 표시하지는 내용을 담은 콘텐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생성형 AI 관련 범죄에 대한 법률적 측면의 제재 논의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20년 6월 정부는 딥 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음란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딥 페이크 처벌법'을 마련했다. 딥 페이크 처벌법은 N번방과 같은 심각한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며 새로 제정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해당 법률에 의거해 딥 페이크를 활용한 불법 합성물의 제작과 유통이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이로 인한 금전적 이익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한편 합성 영상의 제작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어 딥 페이크를 이용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따라서 범죄 발생률을 낮출 수 있는 실질적인 논의들이 제기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따른다. 소대섭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은 "우리나라는 규제적인 측면이나 법적인 측면에서 서유럽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며 "윤리적 순위를 우선시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전했다. 생성형 AI는 창작의 영역에서 일부분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오히려 창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범죄로 남용되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무분별한 AI 남용을 저지하고 올바른 생성형 AI 체계를 구축해나갈 수 있는지 귀추가 주목된다.

임채린 기자 06chaelin@hufs.ac.kr



▲AI를 사용한 이미지 제작(출처: 네이버 웹툰)

것이다"고 밝혔다. 이후 현재까지 공개된 원고 6화 분량을 전면 교체한 뒤 AI 활용 작업 중단을 선언했다. 그러나 웹툰에 AI를 활용하는 것은 양산형 작품에 불과하며 제작사의 낮은 저작권 의식 수준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다. 동종업계 창작자들 또한 네이버웹툰의 이러한 행보는 창작자들의 일자리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생성형 AI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미국에서 트위치(Twitch) 방송을 하고 있는 BJ A 씨는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자신의 딥 페이크(Deepfake) 이미지가 성범죄에 이용됐다고 밝혔다. A 씨는 "내 의지와 상관 없이 내 사진이 인터넷에 퍼지는 것이 수치스럽다"며 딥 페이크 사이트에 대한 고소 의사를 밝혔다. 딥 페이크 기술은 성범죄뿐만 아니라 정치인의 발언을 조작해 비방하는 등 가짜뉴스의 용도로도 자주 활용된다. 이는 실제 이미지와 딥 페이크를 통해 만들어진 이미지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생성형 AI가 발전돼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 www.사사한줄토익.com

## 정치 위급재난문제 오발령, 엇갈리는 여야 반응

지난달 31일 오전 6시 32분경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가 북한 발사체와 관련한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시민들에게 위급재난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서울시가 보낸 문자엔 경계경보가 발령된 이유가 드러나지 않아 시민들은 혼란에 빠졌다. 약 30분이 지난 후 서울시는 발령한 경계경보가 오발령이라는 위급재난문자를 다시 보내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이에 대해 여야는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나친 게 모자란 것보다는 낫다"는 의견을 보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오발령하고 행정안전부가 바로잡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 사회 생후 4개월 신생아 방치한 친모, 실형 선고돼

신생아를 홀로 방치하고 영양결핍으로 사망하게 한 20대 친모 A 씨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지난 1일 김승정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에 출산한 아이를 홀로 양육하면서 일을 한다는 이유로 방치했고 4개월 만에 숨지게 했다. 아이는 필수 기초 예방접종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확인됐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생후 4개월의 피해자를 위한 돌보미도 구하지 않았고 퇴근 후에도 귀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질책했다.

## 경제 미국 연방준비제도, 6월 금리 인상 없이 동결해

지난 1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는 통화정책회의에서 이번 달 금리를 인상없이 동결했다. 이는 지난 4월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가 크게 오름에 따라 연준 측이 이번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한 것과는 다른 결과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 저널(Wallstreet Journal)은 금리를 동결한 연준이 10회 연속 이뤄진 금리 인상과 은행권 긴장에 따른 여파를 파악하는 시간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다. 제롬 파월(Jerome Powell) 연준 의장은 "긴축의 후행 효과와 은행권 긴장에 따른 신용 위축으로 인해 불확실성에 직면했다"며 "데이터와 진전되는 전망을 신중하게 평가할 여유가 생겼다"고 전했다.

## 국제 일본 도쿄에서 '매독' 확산, 보건당국 비상 걸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일본의 매독 감염자가 이번 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일본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27일 요미우리 신문(讀賣新聞)은 "매독 진단을 받은 도쿄 내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해 발생한 신규 감염자는 연간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 감염자수보다 약 20% 많다"고 보도했다. 이에 도쿄(東京)도 보건당국은 매독 확산 방지를 위해 도쿄도 내에 총 8개의 관내 보건소에 무료 임시 검사소를 설치하고 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매독 대응 관련 특별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 계속되는 미·중 패권 싸움, 사면초가에 빠진 우리나라

세계적인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중국의 정찰 풍선이 미국 영공에 침입한 사건 이후 갈등은 더욱 심화됐다. 이어 지난 21일 중국은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Micron)의 제품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본격적인 미·중 패권 다툼에

시동을 걸었다. 이에 강진석 우리학교 중국외교통상학부 교수와 임대근 우리학교 융합인재학부 교수를 만나 미·중 대립의 현황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식에 대해 알아보자.

강진석 우리학교 중국외교통상학부 교수 · 임대근 우리학교 융합인재학부 교수

## Q1.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격화시킨 중국 정찰 풍선 사건의 배경이 궁금합니다.

임 교수: 지난 2월 중국의 정찰 풍선이 미국 상공에서 발견됐습니다. 미군은 이를 뒤 전투기를 투입해 이를 격추했죠. 지난 2001년 일어난 9·11 테러의 경우 항공기가 납치된 사건으로 비행체 자체는 미국의 것이었어요. 물론 중국의 정찰 풍선이 테러의 목적은 아니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상공을 무허가로 침범한 최초의 군사적 사건이라는 점에서 미국은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중국은 이를 민간 무인 비행선이라고 주장했지만 미국은 민감한 정보를 수집한 군사용 장비라고 못 박으면서 양국의 갈등이 고조됐죠.

## Q2. 현재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일명 '반도체 전쟁'은 어떻게 시작됐나요?

임 교수: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전쟁은 지난 2019년 트럼프 행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미국은 중국 통신 장비 회사인 화웨이(Huawei)의 제품 구매를 제한하는 제재 조치를 취했어요. 바이든 행정부도 이런 기조를 이어 반도체 제조 기술 및 관련 장비를 중국에 반입할 수 없도록 했죠. 그러자 중국이 이에 맞대응하면서 미국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한 거예요. 중국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유였죠.

## Q3. 미국은 표면적으로 반도체 생산 및 공급망 협의를 결성한다는 명분으로 칩4(Chip4) 동맹을 주도했습니다. 그 이면엔 어떤 의미가 함축돼 있다고 보시나요?

임 교수: 우선 칩4 동맹이란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에 관한 실무 협의체입니다. 지난해부터 논의되고 있는 사안으로 △대만△미국△우리나라△일본의 협력을 일컫죠. 현재 협의체 내에서 반도체 생산과 공급에 관한 협의까지 진행됐어요. 반도체 산업에서 미국은 반도체 △기술△설계△장비 분야를 이끌고 △우리나라△대만△일본은 각각 △메모리 반도체 생산(非)메모리 반도체 생산△소재와 부품 부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급망 보안△연구 개발△인력 개발 등을 강화하려는 거죠. 물론 칩4 동맹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제외해 미국의 우방들로 이뤄진 경제 동맹을 긴밀하게 하려는 의도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요. 미국은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견제 정책을 구상하고 있기에 칩4 동맹에 참여하는 4개국의 협력 아래 중국의 반도체 산업 지배력

을 약화하려는 시도인 셈이죠. 이를 통해 중국 경제 의존도를 줄이면서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는 양가적 목적을 가진다고 볼 수 있어요. 결국엔 중국의 경제 성장을 억제함으로써 미국 중심의 세계 패권에 도전하고 있는 중국의 확장을 견제하는 데까지도 이어질 수 있죠.

## Q3-1. 우리나라의 칩4 동맹 참여에 중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임 교수: 중국은 우리나라의 칩4 동맹 참여에 부정적인 반응을 유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칩4에 가입하게 되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등 우리나라 기업으로부터 중국에 공급되는 반도체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과 국제 전략이 지나치게 미국 지향적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도 있어요. 특히 칩4에 대만이 참여하면서 하나의 중국을 고수하는 중국이 대만을 '국가'로 간주하는 협의체에 찬성할 수 없다는 정치적 입장도 존재합니다.

## 4. 우리나라는 반도체 전쟁 속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요?

임 교수: 우리나라는 반도체 분쟁에서 기본적으로 미국과 같은 보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우리나라 정부는 칩4에 참여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고 지난 2월엔 칩4에 참여하는 4개국 고위급 회담을 열어 반도체 공급망에 관해 논의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중국은 최대의 반도체 시장이고 미국은 최대의 반도체 생산국인 만큼 칩4 동맹은 우리나라에게 아주 곤란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엔 반도체를 팔아야 하고 미국과는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해요. 우리나라가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를 거부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죠. 미국과 우리나라는 반도체 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반도체 시장을 확대해야 하는 공통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요.

## Q5. 지금까지의 미·중 대립 양상을 고려했을 때 신냉전이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강 교수: 최근의 움직임이 냉전적 분위기를 풍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결구도가 찾त 속의 태풍으로 끝날지 아니면 과거 냉전과 같이 지나긴 대결의 서막을 열 것인지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워요. 다만 최근의 미·중 대립이 과거 냉전과는 여러 면에서 차이점을 보인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먼저 미·소 냉전은 정치적 국제질서 측면에서나 경제적 연맹체 측면에서 확연하게 디커플링(decoupling)\*이 돼 있었습니

다. 그러나 현재 미·중 관계는 정치적으로 대결의 모양새를 취하지만 경제적으로 디커플링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예요. 반도체를 둘러싼 대립 구도에서 서로 최후의 수단까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만 봐도 디커플링이 실제로 성립되긴 어려운 국면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죠. 다음으로 과거 미·소 냉전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진영 그리고 권위주의와 공산주의 진영의 대결로써 대립 구도가 선명했다고 볼 수 있어요. 반면 현재 중국은 덩샤오핑 노선이 수십 년간 유지되며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공존 위에서 중국사회가 건립됐지만 최근 덩샤오핑의 노선이 흔들리면서 애국주의 노선이 전면에 대두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요. 사실상 미·중 양국 모두 대내적으로 자국 우선주의 그리고 대외적으로 자유주의 무역의 끈을 유지하는 비슷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 Q6. 계속되는 미·중의 패권 다툼에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강 교수: 정말 어렵고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더욱 냉정하고 웅대한 시야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현실주의 정치가 이른바 '투키디데스의 함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그 현실을 하나의 흐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중국이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게 미국으로선 큰 위협이겠지만 강대국과 신흥국의 대결이 역사적 필연이라면 그것이 동아시아 지평에서 위기이든 기회이든 하나의 예측적 흐름으로 바라봐야 해요. 또한 현실주의적 시각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가치와 이념으로 사태를 독자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가 과거와 같은 강대국의 각축장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려면 독자적인 목소리와 행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독자적 행보는 한·미동맹이나 한·중우호의 관계와 결코 모순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요.

임 교수: 우리나라는 미·중 패권 다툼에서 중립을 지키는 게 최선입니다. 우리나라는 미·중 모두와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고 외교·안보의 측면에서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지나치게 한쪽에 치우친 외교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중립적 태도를 통해 미·중 대립의 중재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커플링 : 국가와 국가 또는 한 국가와 세계의 경기 등이 같은 흐름을 보이지 않고 탈동조화되는 현상

\*\*투키디데스의 함정 : 새로운 강대국이 부상하면 기존의 강대국이 이를 두려워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는 뜻의 용어

조수빈 기자 05subin@hufs.ac.kr

## 한줄명...

외대학보 기자들의 한줄 기사

고서연: 학보를 통해 많이 성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연: 청춘을 남김없이 쏟아내고 갑니다.

김상현: 이번 학기 덕분에 알차게 보냈습니다.

송성윤: 글을 통해 더 나아질 미래를 꿈꿉니다.

양진하: 아쉬움을 뒤로하고 떠납니다.

임채린: 이번 학기 내내 즐거웠고 다음 학기도 잘 부탁드립니다.

정연아: 외대학보의 글이 모두를 잇는 길이 되길.

조수빈: 다음 학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명원: 학보에서의 일년 반 행복했습니다.

한 비: hanby is free.

황동현: 외대학보 덕분에 오랜만에 많이 웃었습니다!





도서칼럼 [책으로 보는 세상]



### 판단중지! 판단중지!

외대학보에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옷이 무거웠는데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더니 벌써 반 팔 차림이다. 한 학기가 끝나간다. 수개월 전까지만 해도 서로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젠 학교에서 가장 친숙한 사람들이 됐다. 신기한 일이다. 지난해 말엔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기분이 괜히 답답하고 개운하지 않았다. 어떤 일에서 떨쳐 나오지 못한 듯한 불안감에 젖어 어디로든 뻘쳐 나가야 했다. 이번 학기는 바빠 미칠 지경으로 날 돌아오고 싶었다. 차취방에서 혼자 쭈그러 있기보다는 세상과의 창구가 필요했다. 그렇게 외대학보에 지원했다.

집단은 목적성을 지닌다. 사람들이 목적 없이 모이진 않는다. △국가△사회△학교 그리고 학보도 마찬가지다. 방중교육은 사실 잘 와 닿지 않았다. 신문이 어떻게 구성되고 리드와 단선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말들이 전부 피상적으로 들릴 뿐이었다. 처음 보는 사람들도 많아 이름 외우기가 벅잡고 식사할 땐 다들 말이 없어 어색함에 질색할 수밖에. 신문도 사람들도 가까워지게 된 계기는 당연히 마감이었다. 수습신부부터 마지막 마감까지 총 7번의 마감을 하며 피곤에 찌든 모습도 보고 한번 마감을 할 때마다 △저녁△야식△편의점 음식△아침△점심△저녁을 함께 먹다보니 어느새 서로가 편해졌다. 외대학보 스타일이란 것도 점차 익숙해졌다. △와 △같은 기호들도 친숙해졌고 외대학보 특유의 맞춤법과 기사 문단의 구조에 스스로가 길들여 가고 있음을 평소 과제나 글쓰기를 하면서 느껴 소름이 돋기도 했다.

이번 학기 내 마지막 기사가 카버스토리로 올라간다는 편집장의 말을 듣자 괜히 오작해졌다. 책임감이 낳은 불안감이었을 것이다. 양 캠퍼스를 동분서주 발발대며 취재해야 할 필요를 실감했다. 학교를 다니며 처음으로 글로벌캠퍼스에 방문했다. 얼마나 크던지 크기가 작아 공간절약이 필수인 설렘에선 상상치도 못한 구조물 배치가 많았다. △건국대학교 일강호 부럽지 않은 명수당△옛 국기의 비석 같은 '정심대도△조화롭게 사치된 조경수들로 이뤄진 신채로 덕분에 땀방에 돌아다니면서도 덥고 찜찜하다는 기분을 잘 느끼지 못했다. 특히 정심대도를 비롯한 비석이 학교에 정말 많았다. '외국어대학교 아니랄까 봐 우리학교 모토인 '진리, 창조, 평화'가 각국의 언어들로 적힌 비석도 있었고 해외의 여러 명사들을 적어둔 비석들도 있었다. 그 중에 정말 마음에 드는 시를 발견했다. 미국 시인 월러스 스티븐스(Wallace Stevens)의 '최고의 허구를 위한 원고'였다. "그대는 다시금 순수한 자가 되어 순수한 눈으로 태양을 다시 바라보아야 하며 태양의 관념 안에서 태양을 분명히 보아야 한다." 난 무엇이 감하고 불잡혀 살았던가를 고민해 보게 된다. 나라는 자아에 갇힌 채 현실을 직시한 적이 있었는지를 고민하며 그동안의 학보 생활을 되돌아본다. 기사를 쓰는 모든 과정은 사실에 대한 일종의 탐구 과정이었다. 하나의 통계나 인터뷰를 제시하더라도 그에 대한 사실관계가 뒷받침됐는가를 항상 확인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을 잠시 내려둬야 한다. 학보에서 얻은 것은 사람들과 돌아오지 못할 추억뿐만이 아니었다. 독단의 눈에 대한 판단중지, 자폐적이던 내 세상에 창구를 얻었다. 뒷담 면은 외대학보 독자들보다는 미래의 외대학보 기자들이 선배 기수들은 뒷담 면을 어떻게 썼을지 궁금해 더 많이 들여다 볼 것 같다. 만일 그들이 이 글을 읽고 후배 기자들이 학보를 하면서 무언가를 얻어갈 수 있길 바랐던 사람이 있었음을 알게 된다면 부관참시당해 부끄러우면서도 뿌듯할 듯하다.

김상현 기자



### [소설 '달과 6펜스'를 읽고] 틀린 삶은 없다

'달과 6펜스'는 화가 찰스 스트리랜드(이하 스트리랜드)에 대한 장편소설이다. 사후 재평가된 스트리랜드라는 화가의 인생이 미화되고 있다고 느낀 '나는 자신이 경험한 스트리랜드의 모습을 기록하기 위해 이야기를 시작한다. 젊은 문인이던 '나는 런던의 사교계에서 문학가들과 어울리던 스트리랜드 부인과 친분을 맺고 그녀가 초대한 저녁식사에서 스트리랜드를 처음 마주한다. 내가 본 그는 예술과는 거리가 먼 젊음은 중년의 금융 중개인이었다. 얼마 후 '나는 스트리랜드 부인에게서 파리로 도망친 그를 다시 돌아오도록 설득해 달라는 부탁을 받는다. 스트리랜드는 파리의 좁은 호텔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고 화가가 되기 위해 파리에 왔다고 이야기한다. 5년 후 '나는 파리에 체류하게 되고 친구인 삼류 화가 더크 스트로브(이하 스트로브)를 통해 스트리랜드와 다시 만나게 된다. 같은 해 겨울 스트리랜드는 병을 앓게 되고 스트로브는 그를 자신의 집에 데려가 간호한다. 스트로브의 부인은 그에게 연정을 품고 스트로브를 버리고 스트리랜드와 떠난다. 하지만 이내 스트로브 부인은 스트리랜드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음을 깨닫고 상심을 느껴 자살한다. 얼마 후 '나는 만난 스트리랜드는 아무런 죄책감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스트리랜드에게 △명예△부△성욕△죽음 등 세속적인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다만 그의 마음속에 끓어오르고 있는 무언가를 표현해내는 것만이 의미가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그 후로 '나는 스트리랜드를 만나지 못하지만 그와 만났던 사람들로부터 스트리랜드가 남태평양 타히티 섬에서 보낸 여생을 전해 듣는다. 스트리랜드는 문명에서 벗어난 타히티 섬에서 일주일 여인과 가정을 꾸려 한센병에 걸려 죽기 전까지 그의 예술세계를 표현하려 했다. 그는 병세가 깊어진 상태에서도 최후의 걸작을 집 벽면에 남긴 채 사망했다.

김상현 기자 06heon@hufs.ac.kr

### [영화 'Noah'을 보고] 우리에게겐 소통이 필요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를 두고 흔히 '초연결사회'라고도 한다.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의 도입으로 시·공간의 제약이 줄어들어 소통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소외와 단절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수는 늘어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SNS가 피상적인 교류만을 촉진할 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소통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한다. 영화 '노아(Noah)'는 이러한 SNS의 역기능적 측면에 대해서 천착하는 단편영화다. 영화는 주인공인 '노아의 컴퓨터 화면만을 배경으로 전개된다. 화상 통화를 통해 여자친구인 '에이미'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도 노아는 게임을 하거나 페이스북(Facebook)에 올라온 신규 게시물을 확인하며 대화에 집중하지 않는다. 노아의 무성의한 반응에 에이미는 서운함을 느끼고 이내 통화는 끊어진다. 에이미의 계정을 주시하던 노아는 에이미가 페이스북에서 '웹소리는 인물과 자주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노아는 에이미가 바랍을 피했다고 의심하며 에이미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해 '연애 중' 상태를 '싱글'로 바꾸고 스스로 관계를 정리한다. 자신의 계정을 도용한 사실에 격분한 에이미는 노아를 차단하고 웹소는 사실 동성애자였음이 밝혀지면서 영화는 막을 내린다.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것은 오로지 이미지뿐이란 사실이 흥미롭게 다가온다. 관객은 물리적이거나 실체적 대상이 아닌 사이버공간에서 부유하는 가상적 형상과 표상들과만 조우한다. 심지어 주인공의 모습조차도 그러한 형태로 제시된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는 모시품이 원본보다도 더 진실돼 보이는 효과를

영화칼럼 [영화로 보는 세상]



'시뮬라시옹(simulation)'이라고 명명했다. 이는 이미지가 실제에 대해 우위성을 갖는 현상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이미지가 도리어 실재를 규정하는 것이다. 노아가 에이미와 통화하며 에이미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끊임없이 확인하지만 정작 에이미와의 대화엔 전혀 집중하지 않는 장면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미지만이 전부인 공간에서 타자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단편적인 정보들에 기반한 찰나의 판단만이 이뤄질 뿐이다. 영화에서 노아는 에이미가 웹소는 바랍을 피우고 있을 것이라고 자의적으로 단정화 후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어버린다. 에이미와의 대화를 통해 그녀의 입장을 듣고 사태를 함께 해결하려는 의지도 드러나지 않는다. 결국 영화의 종반에서 노아의 확신은 오해에 불과한 것이었음이 밝혀진다. 영화는 이처럼 초연결사회의 이면이라고 할 수 있을 소통이 부재한 현대사회의 단면을 신랄하게 묘사한다. '좋아요나 '땀글' 등 가시적인 지표에 집착하고 타자의 시선을 의식해 보여주는 '나를 가꾸는 모습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현실과 너무도 닮아 있다.

SNS를 완전히 벗어난 관계의 형태를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 SNS가 관계의 논리를 정의하는 초연결사회에서 우리는 정말로 연결돼 있는가. 소통은 경험에서부터 시작된다. 타자의 언어와 요구에 귀 기울이고 이에 응답하려는 욕망이야말로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이자 전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미지를 넘어서 타자에 직접 가닿으려는 실천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

송성윤 기자 06sysong@hufs.ac.kr

### 1080호 학보를 읽고

### 한 학기의 끝, 그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옛것에 갇힌 채 갇힌 게 갇힌 벌써 오래된 일이 되고 학생들은 종강을 기다리고 있다. 한 학기의 마지막까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지금 학교는 학기를 마무리하는 학생들의 열기로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외대학보 또한 이에 못지않게 더 나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열정을 보여왔다. 이번 외대학보 1080호는 △교내시설 오염△불안정한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학생자치△AI융합대학 신설 △미흡한 교내 장학제도에 대해 다뤘다. 3면에선 서울캠퍼스(이하 설캠)의 교내시설 오염 문제를 지적했다. 설캠은 도서관과 국제학사에서 일회용 컵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글캠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과방과 동아리방이 위치한 △어문관△인문경상관△학생회관은 음식물 쓰레기통의 불비로 학생들이 남긴 음식물 처리에 문제가 존재했다. 다른 대학교의 해결방안을 참고해 일회용 컵 및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학생회를 비롯한 학생들의 노력과 협력이 더해져 학교가 한층 더 쾌적해지길 바란다. 4면에선 글캠의 불안정한 학생자치에 대해 다뤘다. 지난해 11월 글캠 총학생회장 선거가 무산되면서 비대위 체제가 유지되다 총학생회(이하 총학) 보궐 선거를 위한 움직임이 일었다. 그러나 보궐 선거가 무산돼 결국 권한 대행 체제로 운영됐고 이는 불안정한 학생자치로 이어졌다. 한편 중앙운영위원회가 평의원으로 추천한 학생의 문서조작 논란도 불거져 학생자치에 혼란이 가

현성민(서양어 · 포르투갈어 21) 서울캠퍼스 독자위원

### 1080호 학보를 읽고

### 한국외대 길라잡이

신록의 계절 5월이 지나가고 어느덧 한 학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다가온다. 학생들은 각자 여름방학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남은 학기를 마무리하고 있다. 3면에선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는 교내 공용 시설의 실태가 조망됐다. 이는 양 캠퍼스에서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로 미흡한 쓰레기 처리가 주원인이다. 서울캠퍼스(이하 설캠)에선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도서관과 국제학사의 쓰레기통이 온갖 폐기물로 가득 차 이용 불편 문제가 발생했다.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도 거의 모든 건물에서 쓰레기 분리배출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주변 공간까지 오염되는 일이 빈번했다. 학생들의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학생 개개인이 시민 의식을 갖고 사용하는 공간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4면에선 불안정한 글캠의 총학생회(이하 총학) 실태에 관한 우려와 함께 진정한 학생자치를 위한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글캠 총학 선거가 무산됨에 따라 글캠엔 이에 준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총학을 정식으로 구성하기 위해 보궐선거를 시행하고자 했으나 다시 무산돼 총학이 권위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불안정한 학생자치 운영 체제는 계속됐다. 이로 인해 대학평의원회 및 학교 행사 진행에 차질이 생겼고 학생자치 단절은 여실히 드러났다. 학생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총학이 다시 원활히 재개돼 보다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학생자치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5면에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우리학교 AI융합대학 신설에 관한 사안을 다뤘다. 우리학교는 인공지능과 ICT 등 첨단 산

김세정(경상 · GBT 20) 글로벌캠퍼스 독자위원



국·부장 고정칼럼

### 유종지미

흔히들 첫인상보다 끝 인상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사람들의 기억 속엔 마지막 모습이 오래도록 남기 때문이다. 개강호를 발행했을 땐 부족함을 크게 느꼈다. 편집장으로서 좋은 기사가 담긴 신문을 발행하겠다는 욕심과 서투른 일처리가 서로 충돌했다. 외대학보에 대한 고민과 걱정에 휩싸여 밤을 지새운 날도 허다했다. 그러나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으며 점차 안정감을 찾았고 결국 마지막 신문까지 무사히 발행했다. 돌아해보면 아쉬운 점이 많지만 유종의미를 거둔 것이길 바란다.

우리학교엔 건물 곳곳에 게시물을 부착할 수 있는 게시판이 존재한다. 동아리나 학회에선 부원들을 모집하기 위해 게시판을 자주 이용한다. 각종 대회나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게시물도 많이 부착돼 있다. 그러나 게시판을 보면 언제나 난잡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학교 측에선 게시물과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했지만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캠퍼스(이하 설캠)의 경우 학내 게시판에 관해 총학생회가 제정한 규정이 따로 존재해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활성화됐지만 학내 게시판은 정보 전달에 있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학교는 명확한 관리 주체를 설정하고 게시물 난립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학교 설캠과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주변의 도로는 언제 사고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험했다. 설캠의 경우 도로폭

이 좁아 차량과 보행자가 뒤엉켜 혼잡했다. 가속하는 차량과 운전 중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배달원도 많았다. 교내에 진입하는 차량도 다수 존재했지만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학교의 규정은 미비했다. 대형차량 운행이 많은 글캠은 캠퍼스 근처 도로의 신호등이 부재했다. 정류장이 있어 이동이 잦은 도로엔 보행용 및 차량용 신호등이 작동되지 않아 학생들은 위험한 도로를 무방비하게 건너고 있었다. 교내 셔틀버스 입석과 과속 문제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학생들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통 문제는 학교에서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렵기에 외부의 관련 부처와 협업해 학생들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한 학기 동안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받았다. 외대학보를 위해 힘써준 104기 부장기자들과 누구보다 힘들었을 105기 차장기자, 그리고 정기자임이 무색하게 훌륭히 기사를 쓴 106기 기자들에게 고맙다. 기자들뿐만 아니라 언제나 학보를 생각해주시는 정은귀 교수님, 안흥섭 사장님, 박진홍 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비록 이젠 학보를 떠나 새 출발을 하지만 언제나 같은 곳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빛날 외대학보를 기대한다.

김상연 편집장 04sangyeon@hufs.ac.kr



### 포스트 팬데믹, AI 시대, 어떻게 읽고 쓸 것인가?

팬데믹이 지나며 교실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강사는 종이로만 나누어주던 수업 자료를 파일로 나누어주고, 학생들은 교실에서 저마다 노트북을 마주하고 앉아있다. 수업이 컴퓨터 화면을 마주하고도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된 이후 교육 현장의 고민은 더 깊어졌다. 팬리가 대세가 된 시절, 지구 건너편에서 열리는 특강에 동시 접속하여 참석하는 시대, 지하철을 힘들게 타고 와서 앉는 강의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나누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며 돌아보니 지난 학기에 비해 다행히 이번 학기 강의실은 훨씬 발달했고, 학생들의 글도 더 깊어졌다는 생각이 든다. 힘든 시절을 보내며 학생들이 이 세계에 대한 폭넓은 시선을 확보하게 된 것을 확인하며 쾨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요즘 학생들은 책을 읽지 않고 SNS나 유튜브만 본다. 우리가 팽배한데, 생각해 보면 그건 학생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카메라 사용설명서를 들여다보며 고민하다 유튜브를 보며 아하, 수긍하던 나를 보더라도 말이다. 평면적인 읽기만을 강조하는 것이 교육현장에서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진 지금 시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읽고 또 써야 하는가? 이 고민은 읽기와 쓰기의 대상, 소재와 주제뿐만 아니라 읽고 쓰는 방식에 대한 질문까지 포함한다.

최근 읽은 책 『다시, 어떻게 읽을 것인가』는 이와 관련하여 여러 시사점을 준다. 저자 나옴이 배운 종이, 스크린, 오디오 등 여러 형태로 나오는 읽기의 매체들을 다각적으로 살펴보면 종이책을 읽는 행위가 감각을 새롭게 하는 일이라 말한다. 손가락으로 책을 만지고 책장을 넘기는 일, 눈으로 책의 디자인을 살피는 일, 코로 책 냄새를 맡는 일 등 인간 신체의 다양한 감각과 책의 물성이 만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인간 성장의 단계에서 어느 단계, 가령 공교육을 하는 과정까지는 종이책을 읽을 필요가 있다고 한다. AI 시대, 온라인 검색을 통한 디지털 읽기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읽기의 감각을 바꾸는 변화에 대해 저자가 우려하는 이유다. 무엇이 사실인지 알기 힘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읽는 사람은 차별하게 대상을 사유하는 감각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읽기 매체가 다채로워진 시대의 변화에 눈을 감고 종이책만을 고집하지는 않는다. 공교육을 마친 성인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매체를 선택, 활용할 수 있다. 이 논의는 자연스럽게 읽기의 목적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무엇을 왜 읽는가? 우리는 많은 것을 읽는다. 길을 가다 광고를 읽고, 신문을 읽고, 시나 소설, 철학서를 읽기도 한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인간의 읽기 능력이 단순히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단편적인 정보를 취하는 실용적인 읽기와 어떤 주제를 분석하고 탐구하는 읽기가 다르며, 인간의 '읽는 뇌'는 일정한 읽기 훈련을 통해 학습되기에 '읽는 뇌'를 잃지 않으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긴 소설 읽는 시간이 아까워서 유튜브에서 책이나 영화를 요약해서 알려주는 영상을 즐겨보면 '읽는 뇌'의 기능이 급격히 퇴화한다는 것도 그런 이유다. 면밀하게 보고 생각하는 법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육 현장에서 우리의 책임도 더 자명해진다. AI 시대에 누가 책을 읽는가 하고 시대의 변화를 당연하게만 받아들이지 말고 다양한 매체를 잘 활용하여 읽고 탐구하는 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만드는 교육을 해야 한다. 모르는 것은 챗GPT에게 물어보라고 하는 말은 때로 효과적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정보의 홍수에 내 판단과 사유를 맡기는 위험한 일이 된다. 문제를 탐색하는 인간이 아니라 체념적, 수동적으로 타인의 판단에 스스로를 맡기는 인간을 기르게 된다.

이번 호를 준비하며 우리 기자들은 학교 안팎의 도로 안전을 묻는 기사를 쓰기 위해 스피드건을 빌려 팽빙거리며 나가 시간을 재면서 지나는 자동차 대수와 속도를 일일이 확인했다. 몸으로 부딪히는 경험과 그에 기반을 둔 단단한 쓰기는 이를 면밀하게 읽어내는 시선과 실력으로 잇는 노력에 의해 더 빛을 발한다. 이 세계를 더 낫게 만드는 일은 편리와 효율의 잣대로만 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급격히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인간이 다함께 주체적으로 잘 사는 방식을 고민하는 우리가 읽기와 쓰기에 갖는 자유와 책임, 교육의 문제를 더 숙고해야 하는 이유다. 우리 기자들이 발로 뚫은 현장의 경험들, 기사를 선별하고 글을 고치며 나는 고민들은 모두 우리 대학을 더 좋게 만드는 과정에 동참하는 귀한 시간이었으리라. 함께 한 모든 분들께 고마움 담아 이번 학기 마지막 호를 마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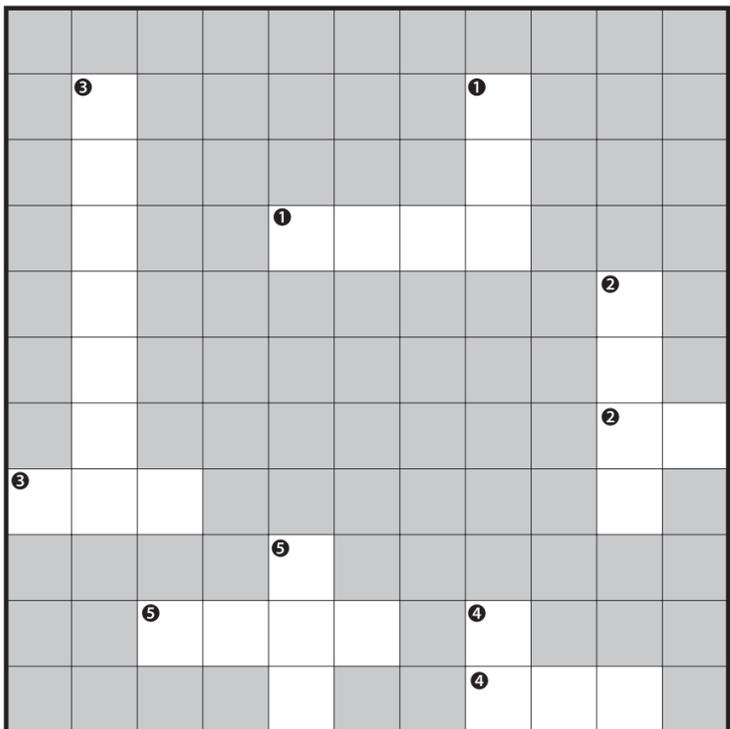
·정은귀(영미문학학과 교수, 외대학보 편집인 겸 주간)

### 외대만평



성수민(서양어·스칸어 21)

### 십자말풀이



#### 가로

1. 아직 우리나라엔 생성형 시와 관련된 ○○○이 부재해 생성형 시의 학습에 자신의 창작물이 활용되더라도 창작자는 그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 (8면 참조)
2. 청년 일자리의 불안정성은 구직을 ○○하게 하는 또 다른 원인이다. (5면 참조)
3. 생성형 AI 활용의 주목적은 ○○○이다. (8면 참조)
4. 지난달 16일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도서관 1층 라운지에서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2023 한국외대 도서관 ○○○' 가 개최됐다. (2면 참조)
5. 지난 26일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대학본부 연구실험력단장실에서 ○○○·몽골연구소가 주식회사 인피니티컨설팅과 한·몽 학술교류 촉진을 위한 실험력 협약을 체결했다. (2면 참조)

#### 세로

1. ○○○은 정치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 아래 적합한 집회와 시위를 보장하고 그 권리 보장과 공공의 질서가 조화를 이루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7면 참조)
2. EU 0000은 유럽에 관심 있는 우리학교 국내외 대학생과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학문 후속 세대 발굴을 목적으로 개최된다. (1면 참조)
3. 전 연령층을 통틀어 ○○○○○○○이 낮아진 계층은 청년층이 유일했다. (5면 참조)
4. 시민들이 집회와 시위로 인해 가장 직접적인 불편을 겪는 분야는 ○○인 것으로 나타났다. (7면 참조)
5. 우리 학교에선 지난 3월부터 학내 게시물 게시 절차와 ○○○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교내 게시물 관리 규정(이하 게시물 규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3면 참조)

※ 퍼즐에 정답을 적으신 후 촬영해 외대학보 인스타그램 계정 (@hufspress\_official)을 팔로우 하신 후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두 분에 한해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드립니다.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난호를 말하다'에 응모해주신 분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원고료와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http://www.hufspress.net/ e-mail : 04sangyeon@hufs.ac.kr

## 외대 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박정운  
 편집인 겸 주간 정은귀  
 편집장 김상연

제작 artel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학사 40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학생회관 211호

www.hufspress.net

# 언어로 세계를 이어가는 이운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방산교역실 과장을 만나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는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 △무역 진흥 △정부간 수출계약 △해의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등의 업무를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현재 전 세계 86개국에 129개의 해외 무역관을 운영 중이며 국내에선 11개의 지방지원단과 2개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운서(서양어·스페인어 10) 무역관은 현재 코트라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의 방산교역실에서 해외 바이어와 방산 국내기업의 거래 연결을 돕고 있다. 뛰어난 외국어 실력과 다양한 경험으로 우리나라 국제 무역을 이끄는 이운서 방산교역실 과장을 만나보자.



### Q1. 우리학교 스페인어과에 진학한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중학생 때 중남미 대륙 대부분의 국가가 스페인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용 인구가 많은 언어를 전공하면 취업문이 넓어질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죠. 발음이 직관적이고 공부하기 어렵지 않은 언어라고 알려진 것도 전공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막상 스페인어를 전공으로 선택하고 나니 나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입학 후에야 알파벳과 기초문법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미 스페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해외파' 학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학년뎨 좌절감을 많이 느꼈어요. 하지만 멕시코로 교환학생을 다녀온 이후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수업에 어려움 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다 코트라에 입사했고 남미로 파견근무까지 다녀왔으니 결국은 스페인어 전공을 살려 일하는 셈이 됐죠.

### Q2. 대학교 시절 경험했던 일 중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신문 스티디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신문 스티디는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학우들과 신문을 함께 읽고 중요한 기사를 간단한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소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1교시 시간에 맞춰 등교하는 게 어려워 지각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했죠. 1년 이상의 스티디 활동으로 중요한 경제 기사를 스크랩을 해두는 습관을 쌓고 나니 훗날 경제논술을 대비할 때 큰 도움이 됐습니다.

### Q3. 해외문화홍보원에서 근무하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해외문화홍보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으로 국내 뉴스 기사를 다국어로 번역하고 사진이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외국인에게 우리나라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도 약 35개의 한국문화원을 두고 있어요. 스페인어 번역 담당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뉴스를 스페인어로 번역해 해외문화홍보원 홈페이지에 출판했고 가끔은 국문 기사도 작성했어요. 지난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회담 개최지였던 평양의 음식문화를 소개하는 기사를 썼던 게 특히 기억에 남네요.

### Q4. 코트라에서 일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대학생 때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의 해외영업 부서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은 했지만 관심있는 산업분야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스펙을 쌓기 위해 많은 기업에 인턴 지원을 냈지만 계속 탈락했죠. 특히 코트라는 순환근무 때문에 가고 싶은 회사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코트라 청년인턴 채용공고가 나왔을 때 함께 취업스터디를 하던 지인이 청년인턴 경력을 쌓아두면 다 공공기관을 지원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해 줬습니다. 코트라 청년인턴 원서를 내고 이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코트라 시장조사실로부터 인턴 면접을 보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렇게 면접과 번역시험을 보고 합격해 5개월 동안 청년인턴으로 근무하며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정직원으로서 다시 만나 함께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큰 계기가 됐어요. 또한 인턴을 하며 본격적으로 국내 기업에 △통상정책 △포퓰리즘 △해외 유망시장 등을 안내하는 시장조사실의 근무가 매력적으로 느껴졌죠.

### Q5. 중남미의 여러 국가 중 페루(리마)의 무역관으로 근무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가장 근무하고 싶었던 국가는 스페인이었어요. 다만 마드리드무역관의 정원은 3명이라 기회를 잡기 어려웠습니다. 해외파견시엔 5지방까지 희망 무역관을 적어낼 수 있

는데 저는 지역에 따라서 스페인어의 억양이나 어휘가 크게 달라지는 점을 고려해 무역관 선호도를 정했습니다. 페루는 중남미 지역에서 비교적 표준에 가까운 스페인어를 구사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학부 전공자 수준으로만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기에 칠레와 아르헨티나와 같이 표준과 거리가 먼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적응하기 어려울 거라 판단했어요. 또한 고산병 증세를 느끼는 편이라 해발고도 2400m 이상인 콜롬비아 보고타 파견은 어려워 페루 리마를 선택하게 됐죠. 중남미 국가들 중에서도 우리나라와 교역이 활발한 편이라 업무적으로도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아마존 정글이나 마추픽추를 여행하기도 하며 특별한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었기에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Q6. 코트라 리마무역관에서 근무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페루는 우리나라에 △구리 △대왕오징어 △망고 △새우 △아연 △아보카도 등 각종 금속원자재와 농수산물을 수출하는 국가예요. 교역규모는 매년 30억에서 40억 달러 정도인데 이중 수입이 70-80%에 달하니 우리나라와 페루의 교역은 만능적인 무역 적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게 부정적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저렴한 가격에 수입한 양질의 농수산물을 소비하고 구리 등 금속원자재를 가공해서 완제품의 형태로 재수출하고 있어 우리나라 제조업 교역에 있어 페루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리마무역관에서 근무할 때 수출 뿐만 아니라 수입 지원에 대한 문의도 꽤 많이 받았습니. 국내기업으로부터 어떤 상품이나 작물의 수입처를 묻는 문의를 받으면 페루 관세청으로 해당 물자를 수출하고 있는 기업을 조사해 간단한 기업 신용도와 컨택 포인트 등을 안내하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덕분에 저렴한 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으며 감사 인사를 해주던 기업 관계자가 기억에 남아요.

### Q7. 코트라에서 근무하면서 '코트라 해외시장뉴스'에 기사를 기고했습니다. 작성한 기사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기사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페루 보톡스 시장동향이라는 글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현지에서 우리나라 보톡스 수입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해서 작성한 기사였죠. 페루의 의약품 수입 인증절차가 까다로워서 번역이 힘들었던 기억이 남습니다. 기사의 신뢰도를 더하기 위해 현지 바이어를 대상으로 시장동향이나 수입 절차에 대한 인터뷰도 병행했어요. 이후 제가 쓴 기사를 기업 관계자들이 읽고 비즈니스 기획에 활용했고 기사 작성에 더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 Q8. 코트라 입사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트라의 전형은 상당히 많은 역량을 요구합니다. 순서대로 △경제논술 △원어논술 △외국어면접 △PT △토론면접 △임원면접 등이 있죠. 전 스페인어와 영문학을 전공해서 상경계열 지식이 충분치 않았기에 경제논술은 학원을 다니며 준비했습니다. 경제신문을 꾸준히 읽고 스크랩하면서 배경지식을 충분히 쌓는 것도 잊지 않았죠.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홈페이지에서 △뉴스 △시장분석 보고서 △진출전략 보고서를 읽으며 중요한 주제의 발행물은 따로 공부하기도 했어요. 원어논술은 무역스페인어 수업을 청강하며 비즈니스 어휘를 익혔고 이후 현지 언론이나 연합뉴스 스페인어 페이지를 통해 주요 글로벌 이슈나 국내 뉴스를 외국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공부했습니다. △PT △토론면접 △임원면접은 스티디를 구해서 연습했습니다. PT 및 토론면접의 경우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출제되니 NCS 상황면접을 꾸준히 준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 되돌아보면 다독으로 배경지식을 충분히 확보한 후 이를 자연스럽게 눈

에 녹여내는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 Q9. 해외 근무가 잦은 코트라 업무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장점은 체류하는 나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지 바이어들과 교류를 하면서 좋은 식당도 많이 방문하게 되고 휴가 시즌엔 해당 국가를 여행하면서 현지 사정을 빠삭하게 알 수 있죠. 동기나 친한 선배가 인근 국가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같이 여행을 가는 경우도 많아요. 다만 가족 및 친구들과 떨어져 해외에서 혼자 살다 보면 깊은 외로움을 느끼기도 해요. 전 내향적이라서 원래 혼자 있는 시간을 선호했음에도 해외 파견근무는 녹록치 않았습니.

### Q10.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페인어 전공자로서 입사를 했기에 과거엔 중남미나 페루의 지역 전문가를 꿈꿨지만 본사로 돌아온 지금은 특정 국가나 지역보다는 산업 분야에서 지식을 쌓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부서는 방위산업에 대한 전문 지식을 요하는 산업 분야라 보니 외부 세미나와 교육에 참석하거나 기업 관계자분들과의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많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추후 사내에서 방산분야 전문가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 Q11. 코트라 근무를 희망하는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코트라를 포함한 공공기관을 준비할 때 희망 직무와 관련된 수업 이수 내역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자기소개서가 중요한 기관의 경우 관련 수업 이수 내역이 모두 채워져 있어야 합격에 유리하죠. 그래서 상경계열 이중전공을 하지 않더라도 부전공이나 자선 등으로 수업을 이수하는 게 좋아요. 또한 취업을 준비하며 내가 마침표를 찍기 전까지 끝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임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코트라 청년인턴을 마친 후 코트라에 입사하기까지 2년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최종 면접에서 떨어진 적도 있었고 3번 도전을 해서 입사한 케이스였죠. '중고 신입'이라는 말이 흔하게 쓰일 정도로 인턴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타 기업 공채에 합격해서 직장을 옮기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만족스럽지 않다고 해서 박차고 나오라는 말은 아닙니다. 업무 역량을 쌓고 사회인으로서의 감을 유지하는 건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죠. 다만 처음 입사한 회사가 목표했던 곳이 아니더라도 관련 업무를 배우려고 노력하면서 내가 꿈꾸던 회사의 문을 꾸준히 두드려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학교 후배들이 사회 다방면의 분야에서 멋지게 활약하는 모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고서연 기자 06syko@hufs.ac.kr